

표 5.1 아시아 인력 수입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국	총외국인 노동자수(천명)	국적별로 살핀 노동자의 수 (1000명, 가장 최근의 자료, 괄호안은 미등록 외국인의 노동자의 수)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	그 외 아시아
말레이시아	2,500	755+(1,000)	100+(400)	79+(33)	자료없음	305
태국	1,260	자료없음	5	자료없음	60	944 a
싱가포르	450	100	60	60	46	자료없음
일본	1,354	자료없음	84+(43)	18+(39)	234+(38)	680 b+(88)
홍콩	자료없음	50	120	18	자료없음	39
대만	297	9	84	138	21	자료없음
한국	210	15	23+(15)	9+(6)	28+(49)	56+(20)

출처: ILO, 1998.

각주: a. 대부분은 미얀마 출신, b. 약 680,000명의 등록된 한국인이 일본에 살고 있다

· 태국-외환위기에 앞서 태국은 완전고용에 가까웠다. 그러나 1997년 하반기에 최소한 50만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체에서 해고당하였다. (이중 3분의 1은 건설업에서 일하였다) 정부는 1998년 말경 실업은 6%에 달하리라 예측하였으며, 이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백만 이상이 되는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은 미얀마인들)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발표하였다. 이들 중 3분의 1은 그 해 중반 경 떠났다. 그러나 1988년 중반 일부 고용주들이 태국인을 충분히 고용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태국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지만 제재소에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외국인이고, 이들이 떠난 자리에 태국인이 대신하지 않는다고 고용주들은 말한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위기는 태국만큼 심각하지 않으나, 주요한 프로젝트를 몇 개 취소하게 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인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1997년 말경 말레이시아 정부는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떠나야 한다고 발표하였으나, 1998년 중반에는 정유소, 묘지, 골프장, 양로원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인이 기피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머무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조업과 농장을 위해 노동자들이 추가로 고용되리라고 발표하였다.

· 한국- 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실업은 3% 이하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8년 초에는 5% 가까이 되었으며,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심하였다. 1998년 초 정부는 미등록외국인이 벌금을 물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46,000명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 인도네시아- 경제위기 이전에도 실업은 5%에 달하였고 그 외 40% 가량이 불완전고용 상태였다. 1998년에 공개된 실업은 10%이상으로 치솟았다. 이는 이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은밀한 이주를 증가하게 하였다.

다른 아시아의 노동력 송출국가들은 경제위기 동안에는 그다지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필리핀에서 송출한 노동력 중 3분의 1 가량만이 이들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리고 방글라데시인의 80%는 페르시아만에서 일하고 있었다.

## 2) 외국인직접투자

상당히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지분투자와 은행융자에 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생산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은 단기적인 시장침체에 의하여 그다지 동요되지 않으며 장기성장률과 생산의 세계화에 의하여 제공된 기회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안정성으로 인하여 개도국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어,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개도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GDP의 0.6%에서 2.5%로 증가하였다.

이주와 관련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잠재적인 영향은 장기적인 영향과 단기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장기적인 영향 면에서 논쟁점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하여 그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더 살기 좋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논쟁점은 유입된 투자가 잠재적인 이주자를 위하여 직접적인 고용을 창출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 외국인 직접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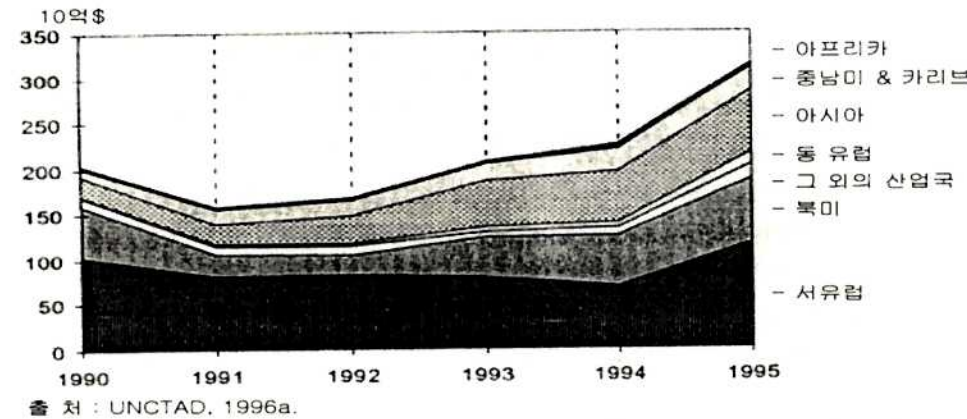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에 미친 영향은 자본, 기술의 발전, 인적자원의 육성 그리고 무역의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를 차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자본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으로부터의 추가자본이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성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 그 뒤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초국적기업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이미 경제를 국제무역에 개방하였고 -그리고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인 산업기반을 갖춘 나라에 일반적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왜 엄청난 투자가 산업국가에 남아 있는지를 설명한다. 1995년 2조6천억\$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세계수입주식(global inward stock)중에서 73%가 산업국가에게로 갔다. 그러나 초국적기업은 더 높은 이득을 찾아서 개도국 중 좀 더 모험성 있는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1984년과 1989년 사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자본이동 중 개도국은 평균 19%만을 받았으나, 1995년에는 38%에 달하였다. 도표 5.2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개도국으로의 투자는 대부분 아시아와 중남미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 표에서 이러한 자금이동이 어느 정도까지 소수의 국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1992년 중남미와 카리브해로 유입된 자본 중에서 26%는 멕시코로, 18%는 브라질로 이루어졌다. 아시아로 향한 자금 중에서 55%는 중국 한 곳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뒤를 잇는 말레이시아에는 훨씬 적은 9%, 싱가포르에는 8%가 이루어졌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유입된 자금의 합이 아프리카 전체에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 많다. 초국적기업은 건설한 교통기반과 훌륭한 국내, 국외의 연계가 있는 곳을 고르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요구는 늘 증가하고 있다.

도표 5.2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 1990 - 1995



성장에 정확히 얼마나 공헌하였는지는 대개 그 나라의 상황에 달려있다. 현재 어떠한 종류의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매우 높은 비율의 고정자본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1994년 앙골라에서 이는 56%이었고, 적도기니에서는 72% 이었다. 반면 매우 저조한 나라에서도 경제의 주요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984-1989년 기간 동안 내부투자는 고정자본 형성 중 평균 1.4%밖에 안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요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외국계열회사는 모든 제조업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였다. 그리고 전기기계와 전자분야에서 이들의 몫은 70%가량이다. 더욱이 초국적기업의 존재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발전한 자국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자본은 이주송출 가능성이 더 많은 국가로 향하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그러하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투자는 사실상 순 이민유입국에게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그리고 필리핀 같은 주요 이주송출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인기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이들 국가에게 외환의 원천은 대부분 이민자들이 보내는 송금이다. 한 연구는 몇 이주송출국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GDP에 대하여 송금으로 이루어낸 액수와 같은 기여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한가를 계산하였다. 이는 1989년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진 외국인직접투자의 1,020배이며 필리핀은 25배로 추산된다.

어찌 됐든 낮은 임금, 훌륭한 교통시설, 그리고 부유한 국가와의 근접성 등 이주송출 또한 유발할 수 있는 특징들이 합하여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장소가 있다. 이는 멕시코, 중미의 여러 국가, 동유럽,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는 중국의 해안지역일 것이다.

### 기술

초국적기업은 자본에 대한 기여 외에도 첨단기술도 또한 가지고 온다. 대체로 초국적기업

은 외국계열에 연구개발(R&D)을 많이 이전하지 않는다. 이는 산업국가에 대한 투자에서조차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초국적기업은 내수시장을 위한 상품과 공정에 적합한 R&D만을 이전한다고 자주 비판받아 왔다. 어찌 됐든 단순히 새로운 상품이나 공정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일부 기술이나 노하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전된다. 해외이주를 하려는 동기를 줄이도록 기여한 1960년대 북미와 유럽사이 기술의 통합은 미국기업이 외국 지부 공장을 설립 한 것에 어느 정도 기인한 것이다.

이주송출을 하는 개도국의 경우, 기술의 이전은 상당히 적다. 1990년 중반 개도국은 세계 R&D의 단지 6%만을 차지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4%이다) 대개의 경우, 이는 가난한 국가에 이루어지는 초국적 투자는 국가 경제와는 분리된 수출전진기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조망 처진 섬(wired island)"인 싱가포르에서도 1993년의 R&D는 일본이 3% 이었던 것에 비하여 GDP의 1%를 약간 넘게 사용했을 뿐이다. 일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은 자국의 R&D를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중국정부는 초국적기업이 더 많은 기술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토롤라는 7,600억\$의 컴퓨터칩 공장을 열었는데 중국정부는 더 많은 기술을 이전하도록 매달리고 있다.

차세대 개도국의 경제는 기술보유 면에서 아마도 지게 될 것이다. 국제재무연맹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 의한 1993년 조사에 의하면 상품과 공정기술의 속도로 인해 좀 더 복잡한 기술이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것이 오늘날에는 가능하지 않으리라 결론지었다. 기술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도의 지원기술을 충분히 보유해야 할 필요도 커진다. 이는 분업이 더욱 명확히 이루어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개도국과 느리게 성장하는 개도국사이의 차이가 커지리라는 전망을 불러일으킨다.

### 인적자원의 육성

초국적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고용인들을 훈련시키고 노동력의 교육과 기술을 더욱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국내상황에 따라 많이 틀리지만 대개 이들은 기술훈련에 국내의 기업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드모터가 멕시코북부에 새로운 공장을 세웠을 때 모든 신입노동자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의 700시간 특훈을 받았다. 은행, 금융서비스, 광고와 같이 본국에서와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지부가 세워진 나라에서도 재생산하려는 초국적 서비스회사는 훈련정도가 특히 높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고국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 나라 스태프를 훈련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반면 공식적인 훈련을 넘어 노동문화의 이전 또한 이루어진다.

### 무역

초국적기업은 여러 면으로 지부국가의 장기적인 무역 역량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자연자원을 이용하려고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 나라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증대하게 된다. 1992년에 미국 초국적기업은 개도국 천연자원 수출의 11%를 담당하였다. 초국적기업은 특정위치가 가

지는 상대적인 장점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해외로 생산지를 찾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는 값싼 노동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나, 기술과 생산방식이 근래 발전함에 따라 많은 공정이 여러 방식으로 “잘려나가고” 있다. 이는 초국적기업내의 많은 무역 이동에 기여한다. 현재 이러한 회사 내부 거래는 세계수출의 4분의 1가량에 달한다. 반면 최근에는 도급업자를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한다고 여겨진다.

초국적기업은 또한 수입을 줄임으로서 지부국가의 무역수지에 기여한다. 이러한 “시장을 찾는” 투자는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3년 초국적기업이 본국 이외에서 만들어낸 상품의 총 판매액은 6조\$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수출(4조7천억\$)보다 훨씬 많은 수이다.

널리 분포된 도급업계약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시장을 찾는 투자의 명확한 예가 퍼스널 컴퓨터산업이다. 비록 델이나 컴팩과 같은 회사는, 말하자면, 북미나 유럽에서 최종공정을 하지만, 총 배급 망은 각 나라의 전문성에 따라 여러 시간대와 국가들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미국에서 생산될지 모르나, 메모리장치는 일본과 한국에서, 디스크장치는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마더보드와 키보드는 대만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 외국인 직접투자가 단기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주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잠재적 이주자들이 고용되는 것일 수 있다. 표5.2에서 나타난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초국적기업에 고용된 사람은 총 7,300만명이었는데, 전 세계 노동인구의 2.3%에 불과하다. 또한 초국적기업이 고용을 빠르게 확충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총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은 1975년에서 1993년 동안 거의 7배가 증가하는 한편, 총 고용인 수는 두배조차 되지 않았다.

	1975	1985	1990	1993
총 고용수(백만)	40	65	70	73
모기업	자료없음	43	44	44
외국계 지부	자료없음	22	26	29
산업국	자료없음	15	17	17
개도국	자료없음	7	9	12
해외로의 외국인직접투자(백만\$)	282	674	1,649	1,932

출처 : UNCTAD, 1994, 1996b

초국적기업이 고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그다지 기여하지 않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생산성을 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이다. 거대 초국적기업들은 더욱 더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을 추구하며, 특히 미숙련이나 저숙련자를 고용하는 경우, 도급업자에게 필요한 많은 일을 하청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화업체인 나이키는 모든 생산을 각기 다른 나라에 있는 독립 도급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있다. 이 회사 자체는 디자인과 판매와 같은 분야에 9,000명만을 고용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7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사실상 300개의 거대 초국적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1980년대 초보다 직접고용은 적어졌다고 결론지었다.

어찌 됐든 초국적기업은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넘어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급업자외에도 국내경제내에서 많은 여러 직업을 만들어내는 전후방의 연관이 있다. 어떤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이러한 간접적 영향이 더 높을 수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는 높고 섬유는 낮다- 평균적으로 초국적기업은 최소한 직접 고용한 수만큼 간접적으로도 고용한다고 ILO는 추산한다. 그렇더라도 이는 전 세계 노동력의 5% 가량에 불과하며, 수치를 상당히 낮추어 잡은 논문에서도 이들 기업이 전 세계 생산적인 자산의 3분의 1 이상을 지배한다고 한다.

이주의 관점에서, 주요 관심사는 개도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점에서 전 세계 제조산업의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고무적이기는 해도, 노동력에 대한 비율로 고려해볼 때 이는 훨씬 더 대수롭지 않은 수이다. 그리하여 1988년 멕시코에서 외국계기업의 지부는 756,000명을 고용하였는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2%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중 516,000명은 제조업에서 일하여, 멕시코 제조업계 유급고용의 21%에 달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에 대한 비율은 각기 1%와 24%이다. 사실상 초국적기업은 아르헨티나, 바르바도스, 보스와나, 말레이시아, 마우리티우스, 필리핀, 싱가포르와 스리랑카를 포함하여, 개도국과 신흥공업국의 제조업 고용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 3) 수출전진기지

외국인직접투자와 잠재적인 이주사이의 가장 직접적인 연결은 처음에는 수출전진기지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수출전진기지는 이주를 하기 쉬운 젊고 이동성이 있는 노동자를 고용한다. 1990년에 70개의 개도국에 230개 이상의 수출전진기지가 있어 4백만명 이상을 고용하였는데, 이는 개도국내의 초국적 회사에 의한 총 고용인구의 45%에 달하는 수이다. 이 지정된 무관세지역에서의 생산은 계속하여 증가한다. 모든 수출전진기지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과는 아니다. 많은 기지가 자국의 자본으로 세워진다. 사실상, 가장 많은 수의 수출전진기지 고용인은 중국에 있으며 (2백만 이상), 홍콩과의 도급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기에, 홍콩의 지위가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바뀐 것은 대다수의 전진기지가 “중국”의 자본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다는 뜻이다. 덧붙여 중국에는 중국특별경제구역(Chinese Special Economic Zones)에 1,400만에서 4,000만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 멕시코의 마필라도라스

중국에 이어 수출전진기지가 가장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은 마필라도라스(Maquiladoras)로 3,000개 이상의무관세 조립공장이 대부분 미국과의 국경선을 따라 이어져 있다. 이러한 공장들은 멕시코-미국 이주와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 1964년까지 미국은 멕시코의 계절 농업노동자들이 브라세로프로그램에서 미국 남서부에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을 때, 멕시코 정부는 1965년에 북쪽 국경선 20킬로미터를 따라서 마필라도라("만들기")공장 설립을 장려하여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부품을 미국제이나 외국에서 조립된 상품에 대한 미국 세금법의 한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이 상품은 국외에서 부가된 가치에만 수입관세를 매겨 재수입 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1966년 16개의 공장에서 시작하여, 1970년에는 450개 이상이 되었고, 1996년에는 800,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3,000개 이상의 공장이 생겼다. 첫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왔으나, 1970년대 초에는 아시아의 회사가 도착하기 시작하여 멕시코 정부는 경영이 허락된 지역을 더 넓혀서 공장은 멕시코 내부에까지 위치할 수 있었다. 이는 빠르게 마필라도라 산업을 세계에서 가장 큰 재외 생산단지로 만들었다. 처음에 이 공장들은 의류, 장난감, 인형의 제조를 위한 단순한 노동집약적 공정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바뀌어, 처음에는 텔레비전, 다음에는 전자제품, 최근에는 화학이나 다른 종류의 제조업으로 바뀌었다. 마필라도라는 멕시코 제조생산의 반이 조금 안 되는 양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이끌리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 때문인데, 아시아의 재외기지보다 50%까지 절감한다. 1995년 멕시코의 평가절하는 다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1995년 중반 임금과 수당은 시간당 1.85\$ 이었다. 평가절하로 인해 야기된 일자리의 손실은 국경지역에 새로운 노동력을 쏟아지게 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여겨진다.

마필라도라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 것은 확실하나 브라세로의 노동자였던 사람들이 고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남성들인데, 마필라도라의 노동자들은 주로 여성이다. 그러나 남성의 비율이 1975년에는 21%에서 1996년에는 40%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기술수준도 높아지는 것 같다. 엄밀히 하자면 간접적으로 고용된 사람들도 포함시켜야 하나, 그다지 많은 수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공장들은 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자본을 수입하여 멕시코 경제와는 그다지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200개의 마필라도라 일자리마다 서비스직은 30개 생기지만, 제조업의 일자리는 3개만이 생긴다고 한다. 고용은 또한 멕시코의 나머지 제조업과 비교할 수 있는데, 멕시코의 제조산업은 거의 비슷한 양의 생산을 하나 290만명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4배가 많은 수이다.

## 여성의 고용

마필라도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전진기지는 어느 곳이든 16세에서 25세 가량의 여성들을 선호한다. 1995년 필리핀에서 이러한 지역에 일하고 있던 총 200,000명의 사람들 중 여성의 비

율은, 점차 자본이 집중되면서 감소되기는 했어도, 4분의 3에 달한다. 수출전진기지의 업주들은 단조로운 생산라인에 더 잘 적응하며, 더 유순하고 훈련이 잘 된다고 여겨지며, -또한 더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기 때문에 여성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1990년 엘살바도르의 한 회사는 미국 방직산업의 무역잡지인 보빈에 "로사 마르티네즈"를 극구 칭찬하며, "한시간에 단돈 57센트로 그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로사는 무척 활달합니다. 그녀와 동료들은 근면하고, 믿을 수 있고, 재빨리 일을 익히는 솜씨로 유명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수출전진기지는 여성들을 노동력에 편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여성들 대부분은 시골출신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끌려 오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매우 비참한 상태에서 일하며 생활한다.

## 수출전진기지와의 이주

수출전진기지와의 이주와의 관계는 복잡하다. 첫째로 국내이주라는 문제가 있다. 확실히 이 지역은 근래에 이주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필리핀의 바탄섬처럼 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더욱 이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노동자들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노동환경은 대개 매우 힘들고 장기간 일한다. 이러한 환경은 빨리 기진하게 만들며, 25세 이상까지 머무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수출전진기지에서 노동 이동률은 매우 높으며 -멕시코에서는 매달 8% 정도이다- 고용과 해고의 관습은 가혹하다.

수출전진기지에 관한 평가를 보면 대개 여성을 고용하고, 남성이 이주해오며, 이주송출과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 관측된다. 중남미의 경우에는 그러할 지 모르나, 아시아는 그렇지 않다. 아시아에서 대개의 이주자들은 여성으로, 일반적으로 중동, 싱가포르, 홍콩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의 경우, 이주자의 69%가 여성이며, 인도네시아는 65%이고, 태국의 경우는 55%이다. 이들 여성들에게 수출전진기지가 초국적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이주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좀 더 전통적인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이러한 공장에서 해고되면 고국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진다. 스리랑카의 공항 근처에 있는 한 기지의 보고에 따르면, 스스로 도시로 떠난 여성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여겨져 결혼할 기회를 손상 받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은 해외의 일자리를 찾게 된다. 서방에서 소유한 회사에서 일했다면 이들이 외국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찌 됐든 이주자 대다수가 여성인 필리핀이나 스리랑카의 경우, 이들이 전에는 공장에서 일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여겨진다.

수출전진기지가 여성을 고용한다는 사실은 남성을 이주하게 만들 수 있다. 수출전진기지의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여성에게 돌아가면, 여성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실패한 남성들은 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이농현상은 수출전진기지의 여성의 고용과 외국의 건설현장으로 남성이 이주하는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제이주를 준비하는 전 단계로 수출진진기지가 잠재적인 역할을 하는 현상은 멕시코의 마필라도라가 가장 클 것이다. 이곳은 확실히 멕시코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만명의 국내 이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마필라도라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주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노갈레스의 한 조사는 그곳으로 이주한 노동자들 중에서 단지 1%만이 궁극적으로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국제이주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먼 지역에서 국경을 건너게 된다.

#### 4) 결론

무역과 마찬가지로, 자본유입이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약 10년 이상에 걸친 단기, 중기투자는 사회변화를 가속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준다. 투자로 인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더라도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이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영향이다. 수출진진기지를 통하여 빨리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전략일 수 있다. 더 광범위한 경제와 잘 연결된, 널리 기반을 둔 투자를 장려하는 더욱 어려운 길을 취하는 것이 아마도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 6. 이주를 통한 국제 임금 격차의 감소

4장과 5장에서 상품과 자본의 이동으로 국제적인 격차가 줄어 -그리하여 잠재적인 국제이주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가능성은 세계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스스로 제어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송출국가에서 잉여 노동력을 다른 나라로 보내면 가난한 경제권의 실업을 줄이고, 임금이 오를 수 있으며, 수입국에서는 새로운 노동자가 도착하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과 북미가 처음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이주로 인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이주가 이와 유사한 효과를 미칠 것인가?

### 1) 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

개도국의 이주송출은 만약 충분한 크기로 발생한다면, 궁극적으로 과도한 노동력 공급을 제거하여 실업을 줄이고,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관한 한 연구는 1978-1991년 사이의 송출로 추가 실업이 6.8%에서 5.5%로 줄었다고 한다. 각 개국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일반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없다.

#### 필리핀

그 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필리핀은 가장 높은 비율의 노동력이 해외에 일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1995년에 필리핀 노동청은 420만의 노동자가 해외에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약 230만 가량의 필리핀인이 영구적으로 해외에 살고 있으며, 그와 함께 최소한 150만의 계약노동자와 추측할 수 없는 수의 미등록노동자가 있다는 최근 통계로 요약된다. 1980년대 말, 해외 계약노동자들은 필리핀 노동력의 2%에 달했다고 여겨진다. 만일 불법적으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4%까지 달할 것이다. 1996년에 필리핀에서의 실업은 약 8% 이었는데, 한 통계에 의하면 만일 모든 이민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온다면 실업은 약 1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대량이주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기 동안 매년 4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수준은 계속 증가하였다. 임금도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이주송출로 인한 빈자리에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정밀한 접근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해외노동력에 관한 한 통계에 의하면, 1986년에 약 25만명의 방글라데시 인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이 나라 노동력의 1%에 달하는 것이라고 한다. 방글라데시는 페르시아만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계약노동자의 주된 공급지이다. 이들 중의 반 가량은 미숙련노동자들이나, 1980년대 동안 미숙련노동자의 실업과 저실업상태를 고려하면, 이는 노동시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숙련노동자들 조차도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으며, 이들 대부분은 일을 통해서 기술을 취득하려는 건축노동자들이며, 6개월마다 교체될 수 있다. 건축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률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보고도 없다. 그러나 표 6.1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이래로 방글라데시의 노동력송출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여 -1991년에는 일년에 147,000명에서 1997년에는 231,000명이 되었다. 초기 통계에 나타난 것처럼, 각각의 이주자들이 평균 4년을 외국에서 보낸다고 추정하면, 1993년 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약 700,000명이다.

이러한 통계는 외국계약으로 공식적으로 떠난 사람의 수만을 나타낸다.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은 수만명에 달한다. 상당수가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있으나, 그들 대부분의 목적지는 더 멀리 있다. 미등록자의 수를 계산하면, 1996년에 2백만의 방글라데시인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방글라데시 노동력에 대한 최근의 통계(1990-1991)에 의하면, 총 경제활동인구는 5,110만 명인데, 해외에 있는 노동력은 그 중 약 4%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그다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다. 1990-1991년 사이의 공식 실업률은 단지 2% 가량이지만, 저실업(일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은 23.2%이다. 그래서 해외에 인구의 4%가 있는 것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표 6.1 아시아의 해외 계약 노동자: 공식 송출, 채택된 국가, 1990-1998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1990	자료없음	141,816	자료없음	자료없음	327,771	자료없음	자료없음
1991	147,131	192,003	자료없음	147,145	456,300	자료없음	자료없음
1992	188,124	416,784	자료없음	195,985	504,355	124,494	자료없음
1993	244,508	438,338	자료없음	157,387	492,936	129,076	114,062
1994	186,326	자료없음	자료없음	114,019	494,757	130,027	145,216
1995	187,543	자료없음	120,603	자료없음	412,120	자료없음	202,296
1996	211,714	자료없음	220,162	자료없음	401,873	162,572	185,436
1997	231,077	자료없음	375,317	자료없음	303,649	149,843	183,673
1998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460,748	자료없음	자료없음

출처: Scalabrini Migration Center, 1999.

### 스리랑카

1980년대 말에, 노동력은 매년 약 140,000명으로 늘어났으나, 일년에 60,000명 가량이 송출되었다. 그리하여 이주는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주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달리 일을 하지 않았으리란 사실로 보아, 실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감소되었을 수 있다. 1990년의 한 연구는 중동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여성 중 3분의 2는 그 전에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1990년 실업은 14%로 남아있다.

### 인도네시아

1989-1994년의 기간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이주를 한 사람의 평균수는 매년 130,000명 가량이었다. 그들 중 60%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이다. 인도네시아는 해외 가사노동을 위한 여성의 고용을 허용하는 유일한 아시아의 이슬람국가이다. 그들에 대한 수요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척이나 증가하고 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이주자들 또한 미숙련이거나 저숙련 노동자이다. ILO를 위한 한 조사는 이들 이주자들이 실업이거나 저실업 상태였지만, 이들의 송출은 노동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1990년 이주는 총 실업인구의 단지 4%에 해당하며, 저실업인구의 0.35%에 불과했다고 한다.

### 터키

1993년에 310만의 터키시민이 외국에서 살고 있었다. 이는 이 나라 거주 인구의 5%가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동력의 측면에서, 외국에 있는 인구의 비율은 더욱 높아, 6% 이상이 된다. 거의 대부분은 유럽연합국가에 있으며, 3분의 2가 독일 한나라에 있다. 실업과 고용에 관한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주로 인한 정확한 영향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대량이주가 일어나던 시기에 인구의 약 10%가 일자리가 없었으며, 그리고 그 외의 10-20%가 저실업 상태였다. 1973년 노동이주가 최고에 달했을 때, 노동력의 6%가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주로 인해 실업이 주는 압력이 완화되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은 분석한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터키이주자들은 떠나기 전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중 3분의 1가량이 목수나 벽돌공과 같이 숙련노동자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주하면 다른 사람들이 빈자리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임금의 측면에서 자료는 많지 않으나, 임금이 올랐다는 증거는 있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사람에 대한) 최소임금은 1970년대에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가장 빠른 상승은 사실 해외노동을 위한 모집이 중단된 1973년에 이루어졌다. 광산과 같이 이주송출에 의하여 영향을 덜 받는 산업의 임금이 건설업보다 빠르게 성장하였다.

### 멕시코

1990년에 멕시코에서 태어난 인구 중 적어도 5%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1990년에 이러한 송출은 대부분 멕시코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말 경제위기 이전에도 이주가 많이 발생하였고 실질임금도 꾸준히 상승하였다.

### 이집트

이집트에서의 송출은 때로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73년 이후, 많은 농장노동자와 건설노동자가 페르시아만의 경제가 성장하던 나라를 향해 떠나기 시작하였다. 1984년 농장노동력이 12.5% 줄었고, 1985년에는 건설노동력이 21%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그 결과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서 1979년 사이, 사설 건설업의 실질임금은 매년 22%가, 사설 농업에서는 매년 31%가 상승하였다.

### 기술의 손실과 두뇌의 유출

이주송출은 잉여노동자를 흡수할 뿐 아니라, 송출국가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또한 빼앗을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에 해를 끼치며, 또한 미숙련노동자 사이의 실업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것이 초래하는 손실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이는 교육투자에 있어서의 손실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1990년에 미국을 향해 개도국을 떠난 거의 90,000명에 달하는 고도로 숙련된 이주자들에 대하여, 이는 한 사람 당 거의 7,400\$, 총 6억 4천 2백만\$에 달하는 3차 교육비용의 손실이라고 계산되었다.

손실된 투자를 떠나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는 이주자들의 서비스가 그들의 고국에서 공급부족이었나에 달려있다. 거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인도의 대학교는 정기적으로 졸업생을 과다하게 배출하여 왔다. 1990년에 인도의 380만에 달하는 과학기술 인력 중에서 120만명이 실업이라고 등록하였다. 필리핀도 경제가 교육된 인력을 흡수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과잉 공급지의 예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 특히 카리브해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잃고 있다. 1960년에서 1987년 사이에 아프리카는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 중 70,000명(전체의 30%)를 대개는 유럽연합국가에게 잃었다고 한다.

개도국은 전문가를 잃는 것 외에도, 목수나 벽돌공과 같은 숙련노동자를 잃고 있다. 페르시아만의 국가들은 막대한 수의 이들 노동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인도에서 이주자의 약 40%가 숙련이었으며, 그들 중의 반은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주가 그다지 인력부족을 이끌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유사하게 방글라데시에서도, 이들 숙련노동자들을 실업상태인 미숙련노동자 중에서 채용하여, 일을 시키며 훈련하여, 6개월 정도마다 교체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파키스탄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년에 1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해외에 송출하였는데, 그들 중 45% 가량이 숙련노동자들이었다. 이는 건설업에서 심각한 기술 부족을 만들어냈고, 임금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이와 함께 생산성도 감소하였다. 오늘날까지도 2백만의 파키스탄 국민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는 총 노동력의 2%에 달하는 수이다.

그리하여 이주송출은 일부국가에서 실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시장의 크기로 보아 그다지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 송금이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

이주로 인해 인력송출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송금을 통한 것이다.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익을 떠나서, 송금은 경제발전에 활력을 주고 그리하여 더 많은 송출을 억제시킬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송금의 총 가치는 표 6.2에 나타나 있다. 이는 1970년에는 20억\$에 못 미쳤으나, 1995년에는 거의 700억\$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송금의 이동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보편적인 합의도 있지 않다. 여기에 나타난 수치는 국제금융기구(IMF)의 국제수지통계의 세 가지 규정-"노동자의 송금(worker remittances)", "이주대체금(migrant transfers)" 그리고 "수당(compensation income)"를 합쳐서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3가지 규정의 해석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시중은행은 이 자료를 일관성 있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의 이동 모두가 개도국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94년 송금이 가장 많았던 5개의 국가는 프랑스, 멕시코, 포르투갈, 이집트 그리고 필리핀으로 -전체의 3분에 1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의 중요한 약점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양도는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송금을 받는 나라의 은행제도가 약하거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또는 이주자들이 대개는 과대 평가된 공식환율로 돈을 바꾸기를 피하기에 생길

표 6.2 전세계의 송금, 1970 - 1995 (천US\$)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1976	6.1	4.2	41.7	1.2	1.9	47.8	1.3
1977	15.7	22.9	140.5	12.5	2.9	70.4	3.9
1978	22.8	69.0	130.5	17.7	8.2	88.2	14.7
1979	24.5	171.8	125.5	25.9	10.4	137.3	10.6
1980	30.6	236.2	129.8	28.6	16.2	214.6	21.5
1981	55.8	276.0	168.4	57.4	17.9	266.2	26.7
1982	62.2	239.5	142.9	22.5	21.1	314.3	108.5
1983	59.2	225.0	128.2	18.1	29.3	434.3	68.5
1984	56.8	206.0	100.4	15.7	46.0	351.0	75.0
1985	77.7	163.0	88.5	12.4	54.3	372.8	69.7
1986	68.7	113.6	62.6	15.8	68.4	378.2	85.7
1987	74.0	125.4	69.6	12.4	61.1	449.3	85.5
1988	68.1	169.9	84.8	15.8	61.4	471.0	118.6
1989	101.7	126.8	95.8	24.7	84.1	458.6	125.3
1990	103.8	143.6	113.7	42.6	86.2	446.1	63.0
1991	147.1	117.5	142.8	65.0	149.8	615.0	63.8
1992	188.1	자료없음	191.5	55.6	172.2	686.4	82.0
1993	244.5	자료없음	154.5	48.7	자료없음	696.6	138.0
1994	186.9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719.6	자료없음

출처 : Migration News, 1998.

수 있다. 때로는 이주자들이 단순히 현금가방을 들고 가거나, 또는 비싼 소비상품을 사가지고와 공식적인 통로를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도 대륙의 훈디제도(hundi system)나, 필리핀의 “현금밀수(money courier)” 산업과 같이 유사 외환시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몇 개의 나라에 대한 한정적 연구에서는 송금의 반정도 만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움직인다고 한다. 파키스탄의 경우 57% (1987년); 필리핀은 50%(1992년) 이었다. 통가와 서사모아의 기록되지 않는 송금은 57%로, 남태평양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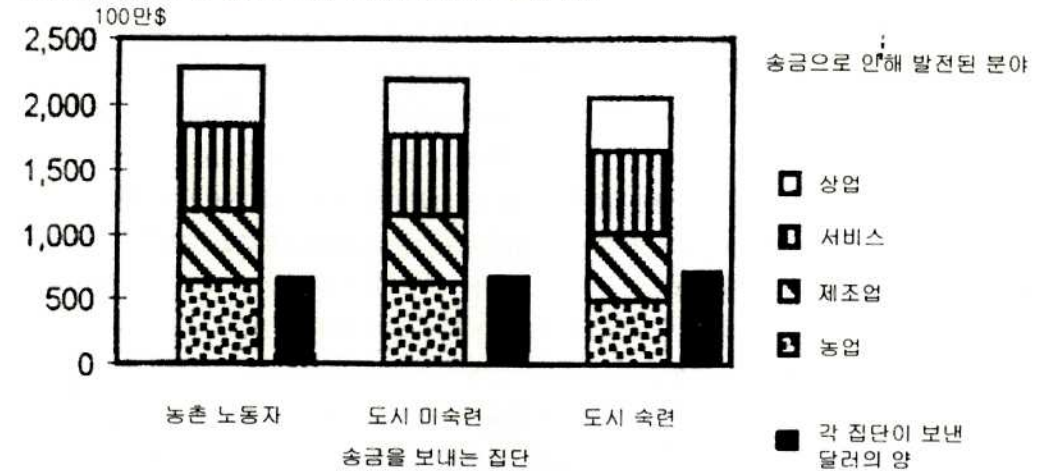
대체로 개도국의 송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으나, 몇몇 나라에서는 수입과 외환의 주요한 근거이다. 1995년 이집트에서 송금으로 47억\$을 받았는데, 수에즈운하의 요금, 석유수출, 관광요금으로 받은 것 모두를 합친 60억\$과 거의 같은 액수이다. 1993년 알바니아는 해외에서 일하는 600,000명의 알바니아인으로부터 외국투자로 얻은 액의 3배에 달하는 액수를 받았다. 필리핀 중앙은행에 따르면, 필리핀은 1996년에 송금으로 70억\$ (1995년보다 42%가 올랐다)을 받았다. 자마이카는 최근에 송금이 급격히 성장하여 이득을 얻었다. 이는 1991년에서 1997년 사이에 GDP의 4.1%에서 9.8%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필리핀에서 전대통령인 라모스는 크리스마스 휴가 때 돌아온 수많은 노동자들을 공항에서 환영하면서, 그들을 “현대의 영웅”으로 칭송했던 적도 있다.

송금으로 인한 소득은 외환의 출처가 되어 많은 가난한 나라에게는 이익이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제, 그리고 미래의 이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주 주어지는 비판은 송금이 기본적으로 투자보다는 소비에 사용되어 고국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리브국가에 대한 연구는 송금이 대개 식품, 의류, 주택 등에 쓰여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레조토에서 송금은 대개 소비품, 내구소비재, 가축, 주택에 쓰여졌다. 남태평양에 대한 한 보고서는 송금이 주로 7개의 분야에 쓰여졌다고 나타난다: 첫 번째, 부채를 갚는 것(대개 이주경비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소비재 상품, 특히 식량의 구입; 세 번째, 주택의 건축이나 개선; 네 번째, 저축이나 재정적인 투자; 다섯 번째, 상점이나 운송과 같은 사업투자; 여섯 번째, 지역 공동체(대개는 교회); 일곱 번째, 결혼과 같은 사회적인 목적 등에 쓰여졌다.

이주자나 그들의 가족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당연한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많은 이주자들의 낮은 교육수준 또한 그들이 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잘 교육을 받은 이주자도 실행성 있는 투자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 형태의 소비, 특히 주택, 더 나은 식량, 교육, 그리고 건강 관리에 쓰여지는 것은 더 높은 생산성을 이끌 좋은 투자라고 주장 될 수 있다. 그러나 송금이 순수하게 소비라고 생각되는 것에 쓰여질 지라도, 경제적인 이득 또한 가지고 올 수 있다. 대개는 경제의 구조에 달려있다. 만일 수입이 증대되도록 송금이 쓰였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 관한 한 연구는 6억 1천만\$에 달하는 송금이 방글라데시의 상품과 서비스 면에서 3억5천1백만\$의 수요를 만들어 냈으며, 최소한 57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도표 6.1 이주로 번 달러가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승수효과



출처: Durand, J., E. Parrado, and D. Massey, 1996.

송금이 멕시코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또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초기에 매년 2백만에 달하는 “이주로서 만든 달러(migradollars)”를 멕시코로 가지고 오거나 또는 보내졌다. 이는 토지가 없는 농촌노동자, 소농, 미숙련 도시노동자, 그리고 숙련 도시노동자 등 각기 다른 직업의 부류에 따라 분류되었다. 다 합쳐, 20억\$의 송금이 농업, (석유를 포함한) 제조업, 서비스, 상업면에서 65억\$에 달하는 생산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된다. 도표 6.1은 이들 각기 다른 세 개의 돈을 보내는 그룹사이에서 송금이 어떻게 분담되었으며, 이들 각 그룹이 보내는 송금으로 멕시코 경제의 4가지 분야에 미친 승수효과는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멕시코에서 토지가 없는 농업노동자였던 사람들이 송금한 5억5천4백만\$은 멕시코의 농업생산을 5억6천7백만\$로 증대시켰다. 이는 송금으로 인해 가족들이 직접 농업생산에 투자하여, 그 돈이 없었다면 살수가 없었던 장비, 비료,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이들의 송금은 지방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제조업과 서비스 (특히 교통)에 활력을 주었다. 상업 또한 송금으로 실질적인 활력을 얻는다. 일부 상점은 이주자들이 돌아오는 겨울에만 문을 열며, 수요가 밀리리라는 기대로 물건을 쌓아 두기도 한다.

송금이 가져오는 승수효과는 그리하여 경제전체에서 느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주가 줄어들 수 있도록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지역의 수입이 늘어나면 가까운 미래에 이주도 줄어들게 될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새 집과 소비상품으로 눈에 보여지는 성공의 표시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따르도록 할 가능성이 더 많다. 더욱이 한 지역의 부가 증가하면 잠재적인 이주자들이 여행에 필요한 돈을 벌리기가 더 쉬워진다.



## 2) 이민이 수입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송출국의 수입이 증가하면, 수입국에서는 일반적인 임금의 수준이 줄어들거나 또는 최소한 임금상승이 어느 정도 둔화되어 수입국과 송출국의 소득이 궁극적으로 통합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이민자들은 수입국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그 나라 노동의 보완을 한다. 두 번째로, 이민자 자신도 또한 총 수요에 더해지는 소비자이며, 받아들이는 나라의 경제전체를 촉진시키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 일반적으로 더욱 활력적이고 젊은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일자리를 채우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 고도 성장기간 동안의 이민

이민이 수입국, 그리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나라 경제의 상태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왕성하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일어난 이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의심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1960년부터 1973년까지의 독일이 가장 뚜렷한 예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젊고, 의욕적인 "초빙노동자"들의 고용 없이 경제성장은 그와 같은 속도로 최소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또는 해외의 이동생산 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초기에, 독일노동자들로부터의 저항은 거의 없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활력적인 경제에 의해 고취된 낙관론 때문이었으나, 또한 독일노동조합연맹이 인력수입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깊이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독일노동자들과 대등한 임금을 지불 받으나, 고용은 늘 독일노동자를 우선하는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던 한편, 많은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이민으로 인하여, 많은 독일노동자들의 직업상의 지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고 많은 연구는 보고한다. 독일은 왕성하던 고용이 멈추어졌던 기간에도, 1983년부터 1991년까지 3백만의 고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민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며 GDP도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동안, 경제 활성화기에 있었던 많은 다른 나라들은 매우 다른 정책을 취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비록 고도의 성장률과 심한 노동력부족을 보였으나 대규모의 외국인노동자 수입에는 반대하여 왔다. 부분적으로 이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유럽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민의 사회적인 결과를 일부 지적하였다. 확실히 일본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경제적인 만큼이나 문화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나 한국과 같은 나라는 경쟁적인 세계경제 속에서 최선은 고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며,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는 "쉬운" 선택은 이러한 과정을 느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9%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주었는데, 1981년에는 숙련노동자들의 입국을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1991년에는 가사노동자와 선박제조와 건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미숙련 외국인노동자를 점차로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야심에 찬 저항은 1987년 신중히 규제된 외국인노동자

는, 만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본국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경기침체에 대한 완충재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포기하였다. 싱가포르의 현재 가장 철저하게 규제되는 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미등록노동자나 그들의 고용주에게 심한 벌칙을 가하고 있다. 수입노동력을 사용해야 하는 동기를 줄이기 위하여 싱가포르정부는 고용주에게 매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996년에 미숙련노동자에 대해서는 한 달에 312\$ 이었고 숙련노동자에게는 142\$이었다. 그럼에도 1996년의 이민자는 여전히 노동력의 20% 가량이었다.

한국도 또한 첨단기술로 가는 길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외국인노동자들의 수입에 대해 싱가포르보다 더욱 저항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심한 노동력부족을 겪어 1994년에는 노동력의 4%나 되었다. 이는 250,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대부분이 미등록인) 이민자들의 2배에서 3배에 달하였다. 가장 부족이 심한 곳은 중소기업이다. 1993년 한국노동연구소와 ILO에 의한 250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부족율은 9%라고 하였다. 많은 기업이 한국인노동자들을 모집할 수 없다고 불평하였으나, 밑바닥에 있는 이 직종의 임금을 올리면 모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여전히 임금인상을 꺼려하였다. 대신에 많은 기업이 한국인 임금의 반이 조금 넘는 액수로 합법 또는 미등록의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전국적인 참여율을 높이고 -특히 나이 든 사람이나 여성들을 노동계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위의 조사에서, 이들 기업의 3분의2 가량이 노인이나 가정주부들은 심한 신체적 노동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대답하였다.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려 해도 이들은 그 임금으로는 일하려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안은 자동화로 노동자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부분은 비용과 위험부담 때문에 이 제안을 피하였다.

신흥공업국가의 길을 뒤따르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거의 똑같은 목표를 채택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비전 2020"은 2020년에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미세전자, 자동차, 우주, 자동화 제조, 생물공학, 그리고 정보산업과 같은 주요 산업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조처로 여겨진다. 1995년 말레이시아는 3%이하의 실업률을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여전히 인력부족을 겪고 있었다. 1995년 150개의 말레이시아회사, 외국계회사, 그리고 합작회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외국계회사의 62%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고용주들은 종종 미등록노동자들을 취하게 된다.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은 상당한 수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본국사람들은 심지어 실업상태이더라도 안 하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게 하는 어떤 주요한 압력을 주게 되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리하여 대만은 1996년에 200,000명의, 대개는 중국에서 온 미등록 외국인노동자가 있었던 한편, 실업률은 2.7%로, 이는 241,000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있었다는 의미이다.

### 저성장 기간 동안의 이민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의 이민 대부분은 훨씬 높은 수준

표 6.3 이민의 총유입과 실업

	1984-1989		1990-1995		증가된유입 (외국인인구의 %)	실업률의 % 변화
	평균유입 (1000명)	실업률(%)	평균총유입 (1000명)	실업률(%)		
미국	675	6.4	1,128	6.4	+3.2	0
독일	520	7.6	920	8.1	+9.2	+0.5
일본	183	2.6	284	2.5	+6.6	-0.1
스위스	69	0.7	101	2.9	+3.5	+2.2
프랑스	45	10.0	93	10.7	+3.5	+2.2
영국	50	8.6	54	9.4	+0.3	+0.8
노르웨이	18	3.0	18	5.5	-0.8	+2.5
룩셈부르크	7	1.6	10	2.0	+2.3	+0.4

출처 : SOPEMI/OECD, 1997

각주 : 증가된 유입은 1984년 (프랑스의 경우 1982, 미국의 경우 1980) 전체외국인 인구 (미국의 경우는 외국태생)의 %로 나타나 있다. 독일의 자료는 1990년까지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것이고 1991년 이후는 전체 독일에 대한 것이다

의 실업률이 있고, 성장이 느리며, 이민이 본국노동자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거나, 최소한 임금을 억누르리라는 이해할만한 우려가 생기는 나라로 침체된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이주자들은 그들 자신이 본국사람들이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영향을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험적 방법의 하나는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이민의 이동과 실업을 비교하여, 막대한 이민이 막대한 실업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OECD의 한 연구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여, 1984년-1989년과 1990-1995년 기간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표 6.3에 요약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한 나라에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한 것과 실업률의 변화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나타났다. 유입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나라에서 실업률은 약간만 증가하거나 줄어들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각 개국별로 이민이 임금과 고용 모두에 미친 영향을 좀더 밀접하게 살펴본 연구가 있다.

### 미국

미국과 같이 큰 나라에서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국내이주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게 시작하는 것이다. 국내이주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증거가 있다. 주요 대도시의 3분의2 중에서 새로이 이주해 온 사람이 각각 평균 1.26개의 일자리 -이주자를 위해서 한 개, 그 지역 사람을 위해서 0.26개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국제이민을 한 사람들은 미숙련이고, 자본을 거의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이주자들의 순 소비는 변하지 않으나, 국제이민자는 미국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의 소비 또한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제이주가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많은 연구들은 이민자들이 미국노동자의 기회를 줄이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향상시켜 놓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리스와 같이 이주자들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곳과, 내쉬빌이나 피츠버그와 같은 상대적으로 적은 장소를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이 연구들은 3개의 주요 계층 백인, 중남미계, 그리고 흑인의 고용과 임금을 비교하였다.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 대개의 경우 그 영향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민 노동력의 수가 두배가 되더라도 미국인의 임금은 단지 2-3%만이 줄게 된다. 손해를 본 유일한 계층은 그들 바로 전에 이민한 사람들이다. 이민자의 수가 10% 늘어남엔, 다른 이민자의 임금이 9-10% 줄어들게 된다고 일련의 연구는 밝혀내었다.

이민이 막대하게 유입되기 전과 후의 개개 노동시장을 살펴본 연구들이 이러한 발견을 뒷받침하여 준다. 1980년 4월 20일, 쿠비를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125,000명의 쿠비인들이 갑자기 도착하였을 때 받은 영향은 가장 놀라운 것이다. 밤사이에 일어난 "마리엘"탈출(마리엘은 그들이 떠난 항구의 이름이다)은 마이애미의 노동력을 약 7% 증대하였으나, 전반적인 노동계의 고용이나 임금은, 미숙련 흑인조차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개의 노동시장에 집중된 것이다. 이들 연구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취업을 원하는 미국노동자들은 많은 이민자들과 경쟁을 해야되는 곳을 의도적으로 피하리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육받은 다른 주의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이고 있으나, 저소득 백인노동자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덧붙여, 이민자들이 집중하여 있는 다른 주에서 가장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떠나고 있다고 최근의 연구는 밝혀내었다. 미국 전체의 경제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임금이 이민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의 사다리 맨 밑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교 중퇴자의 임금이 10% 감소하였고, 그 3분의 1은 미숙련 이민노동자 때문이라고 한 연구는 결론 지었다. 다른 연구도 비록 비슷한 범위는 아니더라도 저임금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민은 많은 전문가집단에게 혜택을 주게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민자들이 법률이나 행정과 같은 미국노동자들에 의하여 점유된 모든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해외로 옮겨갔을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준다. 예를 들어,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로스앤젤리스로 이민한 멕시코인이 없었다면, 섬유와 같은 산업의 90,000개의 일자리는 없어졌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유모나 가사보조원을 사용하게 되어 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기술을 펼치게 되었다.

이민은 그러므로 미국에서 주목을 끄는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1994년에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보고한 것처럼, 불평등이 증대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민은 전체 변화의 일부분 이상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캐나다

다른 수입국에서도 이민이 본국 임금에 그다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캐나다에서 이민이 고용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오랫동안 관심사였다. 이 나라에서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인구의 17%를 차지하며, 1996년에 많게는 210,000명까지 이민자가 도착하리라 예측되었는데, 3,000만 캐나다인구에 대한 비율로 보면 미국보다 2배나 많은 수이다. 반면, 1980년대에 나타난 일련의 연구는 이민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하여 노동시장 전체를 살펴보면, 비록 개개의 이민자 그룹과 얼마간의 경쟁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경쟁을 하는 그룹은 미국에서 이민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산업별로 분류한 다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높은 집중을 보인 산업에는 경미한 일자리의 해임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쟁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른 연구들 또한 전반적인 일자리의 손실, 특히 제3세계 이민자들로 인한 해임은 없지만 일부 직종의 캐나다인들은 미국인 뿐 아니라 유럽인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 호주

호주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도 거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전쟁 후에는 경제상태와 관계없이 이민자들은 최소한 그들이 취한 것과 같은 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었다고 여겨진다. 1974-1975년, 1982-1983년과 1990-1992년 사이의 경기침체기간 동안을 살핀 이민조사국의 한 연구는 앞서의 연구결과를 재확인시켜 주어, 경제침체기간 조차도 이민과 실업사이 연관은 없다고 한다. 이민자들은 그들이 취하는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 낸 일자리로 더욱 혜택을 받았다.

### 유럽

유럽에서 이민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프랑스의 한 연구는 모든 범주의 이민자들은 프랑스인을 보완 해주며, 특정 이주자그룹이 10% 성장을 해도 임금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도시들을 비교 연구한 것과 비슷한 독일의 한 연구는 직장에서 독일인의 임금과 이민자의 비율 사이 연관이 거의 없다고 밝혀내었다. 사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회를 확대시킨 예도 있다. 라인란트-베스트팔렌주에서 이루어진 1991년의 한 연구는 1988년에서 1991년 사이 이민자들로 인해 독일회사가 생산용량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어, 그 곳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이민자들이 독일인을 노동시장에서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을 위한 여분의 고용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독일의 다른 연구는 미국의 최근 연구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직접 대체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적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유럽에서, 쿠바의 마리엘 이동과 비교될 만한 연구가 있다. 첫 번째는 1962년 프랑스인이 알제리아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르투갈의 레토르나

도스(retornados) -1970년대 중반 앙골라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포르투갈의 노동력을 3년내에 10% 까지 증대시킨 사건에 관한 연구가 있다. 상당수의 이들 귀환자들은 리스본, 포르토, 그리고 세투발 등의 도시로 향하였다. 이 연구는 그 영향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본다. 하나는 18개의 정치구역 사이의 건설업 임금을 비교하였다. 이는 강한 영향을 보여준다. - 그러나 그 차이가 발생한 시기와 지속된 정도로 보아 일자리에 어떠한 다른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암시한다. 그들은 두 번째 분석 같은 기간동안의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험의 국제 비교에 의해 이를 더욱 확신한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만일 영향을 미쳤더라도 무척 경미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는 이민자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 나라 전반적으로는 밀바닥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발견으로, 미국의 분석과 반대가 되는 것이다.

미등록이민자들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당한 논쟁이 되고 있다. 그 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산은 이웃국가에서 들여온 노동에 막대하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 광산에 있는 외국인의 비율은 줄어들어, 1973년 78%에서 1992년에는 47%가 되었다. 최근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등록노동자들이, 특히 모잠비크에서 도착하는 것이다. 저실업율이 40%인 이 나라에서 이는 심각한 저항을 불러 왔다. - 특히 이민자들이 본국노동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비공식부문은 더 심하다. 아프리카개인사업자위원회는 남아프리카에서 장사하는 미등록노동자는 500,000명에 달하는데, 이는 이 나라의 비공식상인의 4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본국노동자들보다 훨씬 조금 지불 받는 농장에서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 때로는 하루에 R1.20(약 30센트)밖에 안 되는 임금으로 일한다.

### 3) 이민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도착하면 본국노동자의 소득에 즉각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민자들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접하면 긍정적인 것이다. 그들이 노동시장의 상층이나 하층의 빈자리를 메울 때, 자국인의 기술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해주며, 그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민에 대한 대안, 특히 저숙련의 이민에 대한 대안은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생산을 좀더 자본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다. 이민은 이러한 과정을 저지하여, 효과적으로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비율을 "늘려" 생산성이 저하되도록 이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이민이 이익을 이끌어낸다면, 이는 막대한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와 같은 일이 많은 수의 이민이 이루어졌음에도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이 강화되던 독일연방공화국에서 1962년에서 1972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자동차와 같이 많은 수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했던 산업에서 다른 분야보다

자본·노동의 대체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다.

사실 대부분의 역사적인 연구는 그 기여도는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이민이 총 성장을 향상시켰다고 나타낸다. 1991년 캐나다 경제위원회의 한 연구는 이민이 수입국의 경제효율성을 증대하며 - 거의 대부분 규모의 경제(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용이 체감하는 일: 역주)를 이끌어내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경미하다. 경제효율성과 인구규모 사이의 연관성은 미국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반면 유럽에서의 연구는 총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생산성은 감소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노동시장의 구조로부터 떼어놓기는 어렵다. 만일 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의 노동력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미숙련노동을 하도록 이민자를 사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 없이는 본국인의 소득이 계속 감소하였을 것이다.

#### 4) 결론

국제 이주가 송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통합을 이루도록 평형의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그러므로 상당히 현안으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송출국가는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임금을 고갈시킬 정도로 이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또한 송금으로 인해 발전이 촉진되어 이주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증거도 없다. 수입국에서, 이는 무척이나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나, 이곳에서도 그 증거는 결론적이지 못하고, 설사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경미하다.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의 이민이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가 되기도 훨씬 전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저항은 발생할 것이다.

## 7. 새로움의 충격

국제이주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의 생활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이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 상황의 갑작스런 변화로 떠밀리거나, 때로는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던 대안을 다른 나라에서 찾게 될 수도 있다. 세계화는 고정된 지역사회를 흔들어 놓아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을 만들 수 있으며, 한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뻗어 있는 새로운 지평을 제시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이주사이의 파괴적인 영향은 잘 형성이 되어 있다. 19세기 중반 이래로 유럽에서 북미와 호주로 대량의 이주가 이루어진 것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변화 - 농업생산성의 변화, 농촌인구의 성장, 그리고 각 나라의 산업혁명의 착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은 도시에서 일을 찾아야만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자기 나라에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매우 공평치 못하여 시골에서 터전을 잃었으나 도시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외국에서 자신의 운을 실험하여야만 하였다.

이주송출과 산업혁명 사이의 상관관계는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한 연구에서는 각국 산업혁명의 기준이 되는 날을 칠질이 처음으로 1,0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날로 삼았다. 이를 근거로 하면, 유럽에서 산업화의 물결은 1830년 영국에서 시작하여; 1840년대에는 프랑스와 독일; 1850년대에는 러시아-폴란드, 오스트리아-헝가리, 그리고 이태리에; 1860년대에는 스페인, 스위스와 스웨덴에서; 그리고 1870년대에는 그 외의 남유럽에 도착하였다. 평균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이주송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는 산업혁명 기준이 되는 때로부터 28년이 지난 후이다.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1891년부터 1920년대까지의 기간은 일본의 산업화 기간 - 그리고 미국과 호주로의 대규모 이주송출기간에 해당한다. 1960년대 초까지도 일본은 미국으로 향하는 아시아 이주의 중요한 근원지였다. 이러한 이동은 1965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누그러졌다.

개도국에서 이주해야만 하는 압력은 사람들을 시골에서 도시로 끌어내는 불균등하고 파괴적인 개발과정과 연결 될 수 있다. 여기에, 산업화된 나라의 기술적인 부작용의 결과, 이러한 과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농업의 혁신, 건강의 증진, 그리고 도시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은 매우 빠르게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켜왔다. 가장 뚜렷한 증상은 도시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2천만에서 3천만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매년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그 결과, 도시에서 살고 있는 개도국 사람들의 인구비율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1960년에는

22% 이었으나, 1994년에는 37%에 달하였으며, 2025년에는 57%에 달하리라고 예상된다. 1990년, 인구 8백만이 넘는 도시는 전 세계에 20 여개에 달하였는데, 그 중 6개를 제외한 모두가 개도국에 있었다. 현재 멕시코시티가 가장 크나, 다른 도시도 많이 뒤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국가들이 100여년 전에 겪었던 현상이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에서 이러한 과정은 모두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런던은 백만이 넘는 첫 번째 산업도시였다. 그러나 백만에서 8백만이 되는데는 130년이 걸렸다. 멕시코시티는 백만에서 1,500만이 되는데 단지 50년이 걸렸을 뿐이다.

이러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단기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자리를 찾아 여행을 하고 있다. 대개 아주 비참한 임금의 비공식부문일지라도 이들은 일자리를 찾거나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다카에서 전체 고용의 65%는 비공식부문이며, 방글라데시 전체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최저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한다. 도시로의 이주는 일반적으로 빈곤의 형태만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은 생활환경이 비참한 불법거주지를 떠돌게 된다. 저소득 국가의 10개 대도시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는 평균 한 가구가 불과 6.1제곱미터에 살며, 44%의 가구가 거주지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한다. 일단 시골에서 터전을 잃으면, 다른 나라로의 이주는 합리적인 다음 단계이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이주는 멕시코가 농경사회에서 더 산업화 된 사회로 파괴적인 이전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단계에 대응하여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는 멕시코혁명(1910-1919)에 의하여 야기된 참해 이후 192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1841-1930년의 기간 동안에 약 744,000명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1930년 인구의 4.5%에 달한다.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이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이다. 예를 들어 1864년에서 1924년 사이 영국에서는 1,700만명의 사람들이 외국으로 갔다. 이는 1900년 인구의 41%에 해당한다. 멕시코의 두 번째 대량이주는 1942년에 시작하여 195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연이어 발생한 가뭄과 농촌의 자금부족에 대응하여 발생한 것이다. 세 번째의 대량 이주는 1960년대에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의 수요를 줄인 농촌의 기계화, 그리고 최근에는 토지소작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이주는 각기 인구의 15% 이상을 넘은 적이 없다. 경제발전의 속도로 보아, 멕시코인의 이주는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완만하다.

경제적인 성장은 언제나 이주송출과 관련이 있다. 세계화의 현대적인 측면이 어느 범위까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켰는가? 부분적으로 이는 규모와 속도의 문제이다. 과거에 이주를 야기한 많은 과정들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1) 정치적인 혼란

세계화와 연관이 있는 정치적인 변화는 삶의 많은 측면을 통제하는 국가정부가 약화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전파를 동반하는데, 비록 막대한 대중의 참여를 허용하나 불안정하리라는 예상도 불리일지언정. 전 세계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에

달하는 사람들이 현재 비교적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아래에 살고 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구공산주의국가 중 일부 국가들이 붕괴하고 많은 새로운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일어났다. 이 자체가 국제이주를 야기하였는데, 특히 구 소련의 일부였던 국가 사이의 이주를 증대하였다. 1990년과 1996년 사이에 9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였는데, 이는 인구 30명당 1명에 해당하는 수이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피하여 이주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차별이 두려워 피하였다. 특히, 다른 공화국에 배치되었던 러시아인들이 이제는 새로운 공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93년과 1996년 사이에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러시아로 되돌아 왔다.

어떤 면에서는, 동유럽의 국경경비가 약화되어 이주자들이 홍수처럼 서방으로 쏟아지리라 생각되었다. 사실상 이러한 일은 위협적인 규모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기존의 연결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몰랐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경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구유럽국가들이 국경경비를 강화하였다.

가장 중요한 탈출은 갈곳이 있었고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독일계동구거주자(Aussiedler)이다. 냉전의 종식부터 1996년의 초까지 약 2백만 명의 독일민족이 고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이동의 규모는 1993년 독일정부가 독일민족에 대하여 일년에 220,000명으로 한도를 정하고, 구소련의 상황이 개선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르리란 희망으로 막대한 액수를 쏟아 부을 정도였다. 1996년에 약 백5십만명 가량의 독일민족이 구소련이었던 지역에 남아 있었다.

서방으로의 대규모 탈출은 없었더라도, 동유럽에서 이주에 대한 국가규제가 약화되자 동유럽국가 사이의 노동자 회전이 상당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러시아는 순 이민국가가 되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터키, 그루지아,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온 노동자와 함께 대규모 이민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동유럽의 국가들은 이제 노동력의 수입국이며 수출국이다. 헝가리인들은 대개 불법으로 오스트리아로 일하러 가는 한편,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이주자들은 헝가리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헝가리의 중앙통계사무소에 의하면 1994년에 약 120,000명의 헝가리인들이 외국에서 살고 있으며, 105,000명의 루마니아인들을 포함한 200,000명의 외국인이 헝가리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유사하게 체코에서도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가속화하고 있다. 체코인들이 오스트리아와 독일로 향하는 한편,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은 체코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1996년 6월 100,0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 프라하에 고용되어 있었다.

혼란스런 규제와 허술한 비자관리로 훨씬 뚫고 들어가기 쉬운 동유럽의 국경은 더 먼 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서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장소로 사용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비엔나에 있는 이주정책개발을 위한 사무소는 매년 300,000명의 사람들이 동유럽을 통하여 서유럽으로 밀입국한다고 추산한다. 어느 곳이든 불법송출업체는 한사람 당 500\$에서 5,000\$에 달

하는 액수를 받아, 일년에 약 11억\$을 벌어들인다.

비록 시행방법과 뇌물의 수준이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하며 빠르게 변화하지만, 언제든 여러 조직적인 밀입국루트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 이루어져 있는 루트는 러시아를 통하여 발틱연안의 국가로 간 뒤 대개 북유럽국가에서 끝나는 위험한 여정이었다.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은 터키와 헝가리를 통하여 여행을 하고 있다. 폴란드 또한 통로로 사용이 되어 1995년 폴란드정부는 약 100,000명의 사람들이 독일로 밀입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베트남과 중국 출신의 갱들은 헝가리와 체코를 준비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 시절 수만명의 동아시아인들이 초빙노동자로 와서 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쉬워졌다. 1995년 프라하의 경찰은 800명의 "등록된 노동자"들이 있었던 작은 중국인식당을 급습하였다. 모스크바 또한 조직적인 준비장소로, 협조적인 공무원이 전성으로 검사하는 위조서류를 가지고 많은 아시아인들이 날아든다. 이탈리아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알바니아는 준비장소로 선호되며 쾌속정으로 아드리아해를 건너는 것으로 여정을 마친다. 이러한 경로는 일년에 약 50,000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매우 허술하여, 사람들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국경에 그다지 주의를 가지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 여기에 세계화와 관련이 있는 변화들은 환경을 더욱 변하기 쉽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전파와 더욱 관련이 있다. 1996년 아프리카 반 이상의 국가들이 민주적인 개혁을 하였다. 이는 공산주의의 붕괴와 관련이 있는데, 다수의 아프리카국가들이 냉전에서 대리전을 치르며 강대국으로부터 외부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집권적인 "개발주의자" 국가를 침해하여, 분열이 생기도록 하였다. 극단적으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쟁과 인종학살을 피해 난민으로 피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과 이주는 경제적인 붕괴 -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과 서로 얽혀 있다.

이주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 중의 하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인종분리정권은 미등록이주자들에 대하여 동쪽국경을 따라 고압 전기 울타리를 세우는 것과 함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민주정부는 이제 새로운 이민자들의 물결을 접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는 울타리를 뚫고 지나가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1995년 한 시위에서 어떤 미등록이주자는 단지 일본17초만에 갈퀴가 있는 장대를 이용하여 8피트 높이의 울타리와 3층 높이로 쌓아올린 레이저 망을 뛰어 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위군은 국경을 건너는 4명 당 겨우 한 명을 잡았을 뿐이며, 실패한 사람들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여, 어떤 사람은 6개월간 스물여덟 차례나 잡혔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민자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250만 명에서 8백만명 (인구의 10분의 1) 까지 추산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대개 이는 어렵잡작일 뿐이다. 그러나 추방된 사람의 수치는 더 정확하다. 1990년 넬슨 만델라가 자유를 얻은 해에 53,418명이 추방되었다. 1995년 민주정이 완전히 실시된 첫해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57,084명을 대개는 모잠비크로 추방하였다.

## 2) 경제적인 혼란

일반적으로 현대화와 자본적인 발전은 늘 파괴적이었지만, 세계화에 필수적인 최근의 몇 가지 과정들은 그 영향을 강화시키고 있다. 1973년 이래로 일련의 사태는 많은 국가의 경제를 흔들여 왔다. 첫 번째 석유파동 이후, 산업국가의 침체는 석유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많은 개도국에게 심한 타격을 주었다. 1972년에서 1981년 사이에 개도국의 외채는 1,000억\$ 이하에서 6,000억\$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외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국가들은 IMF와 세계은행과 불편하지만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세계은행은 중남미와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대부분에게 국가경제를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는 엄격한 조건으로 차관을 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고용과 생계에 대개는 부정적인, 심각한 영향을 미치었다. 예를 들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은 농업과 산업 모두를 국제경쟁의 차가운 바람에 노출시켜 고용과 임금을 줄이게 한다. 정부지출의 삭감은 가난한 사람들이 의존하던 공공부분의 고용을 줄이고 많은 사회복지와 보조금을 삭감하였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경험이 모두 일정하지 않기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주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나라별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중남미와 카리브해의 국가

1980년대 초의 경제적인 붕괴는 그전 몇 십년간 축적한 부를 모두 없애버렸다.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의 일인당 GDP는 9.6% 떨어졌고, 소비는 6% 떨어졌다. 공식적인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자,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분야로 몰려들었다. 1980년부터 1992년 사이 비공식분야에서 생계를 꾸려 가는 비농업인구의 비율은 25%에서 32%로 올랐다. 이는 노동력의 총 저효율 (실업+저실업)을 42%까지 이르게 하였다. 동시에 이 지역의 임금도 떨어졌다. 이러한 쇠퇴는 분야에 따라 다양하여 산업분야는 5%이고 농업은 20% 이었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더욱 빨리 떨어져 42%가 되었다. 1980년대가 중남미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회복의 징후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저시경제상의 안정과 3%이상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고용과 소득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석유파동 이후의 침체는 사하라 이남의 국가의 생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계속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1973년 이래로, 일인당 생산은 10%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총 농업수입은 15% 줄었으며, 매년 6-8%의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야만 한다. 이는 공식, 비공식 모든 분야에서 이미 황폐해져 있는 도시지역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도시의 실업은 1970년대 중반 10% 가량이었는데, 현재에는 15%에서 20%에 달한다. 아프리카의 마을과 도시 대부분의 비공식분야는 마지막 취업수단이 되어 도시노동력의 60%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남아시아

남아시아의 국가들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극단적인 경험은 피하였다. 남아시아는 국제금융과 상품시장에 그다지 노출되지 않아, 1980년대의 외채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녹색혁명의 결과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는 노동력 증가의 많은 수를 흡수할 수 있었다. 남아시아의 산업화는 수입대체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생산을 증대하였으나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고 도시노동력을 많이 흡수하지 않았다. 1980년대 제조업의 고용은 매년 1% 이하로 증가하였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집은 비공식분야에 가해져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0년에 전체 제조업 고용의 70% 이상에 달하였다.

### 북아프리카와 중동

이 지역은 이집트나 예멘과 같이 가난한 노동자 송출국뿐 아니라, 석유를 수출하고 노동력을 수입하는 페르시아만의 부유한 국가를 포함하여 무척이나 다양한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석유수출로 인하여서건, 이주노동자의 송금을 통하여서건,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다. 1980년대 중반 석유가격의 하락은 이 지역에 일말의 위기를 가져왔으며, 그 이래로 몇몇 국가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은 1970년대에는 7% 가량이었으나, 침체 이후에는 10%나 그 이상이다.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최근까지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며, 성장은 매우 효율적으로 고용으로 전환하였다. 1990년대에 최저빈곤선 이하로 사는 사람이 중남미와 카리브의 나라들은 28%인데 반하여, 이 지역은 단지 15%이었다. 이는 단지 경제성장 때문만은 아니고 훨씬 더 평등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상당히 다른 길을 취하고 있다. 시장경제로 향하는 꾸준한 성장으로 경제성장이 상당히 촉진되었다. 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더 잘살게 되었으며, 절대빈곤층은 지난 20년간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8년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 보이며 경제적인 혼란은 -만약 계속된다면- 자신의 미래가 고국에 있으리라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을 결국 이주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은 전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찌 됐든 일반적인 영향은 경제적인 안정의 위기이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비공식분야에서 두개나 세개의 일을 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안정성의 결여가 많은 사람들을 외국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가족들과 살아남기 위한 전략에서 자신의 몫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패의 위험을 감소하는 방편으로 시골의 가족 중 일부는 농사를 짓고, 다른 이들은 도시나 외국에서 일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이주자는 그리하여 남은 가족들과 "일종의 보험"에 드는 것일 수 있다. 가장은 이주자가 일을 찾는 동안 기본적인 여행경비나 생활비를 지불하며, 이주자는 정기적으로 송금을 보내고,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특별한 어려움에 처하면 더 많이 송금을 보내기로 약속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의 한 형태가 미국-멕시코 국경선을 따라 헤어진 가족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젊거나 중년으로 위험부담과 실업의 대가는 크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편 18세 이하이거나 여성,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고국에 남아 있는데 그 곳에서 임금은 낮으나 안정성은 높고 지출이 적다.

### 3) 사회적인 혼란

일자리를 잃고 정착하지 못한 사람을 넘어, 세계화는 사회의 성격 또한 바꾸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공동체와 대가족제가 핵가족으로 바뀌고, 생존경제가 자본주의와 소비문화에 의해 침투 당하는 것처럼 현대화의 지속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공동체를 개방하고 원자화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도록 자극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는 전 세계 미디어의 확산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저개발국가에서도 확실히 10명당 한 명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으며, 100명당 한 명은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자에게 이주의 기점이 되는 도시에서는 그 비율은 더욱 높다. 중남미의 비참한 슬럼에서도 텔레비전 안테나는 숲을 이룬다. 영화에서부터, 잡지, 대중음악에 이르는 무수한 형태의 통신수단이 이에 첨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매체는 수입이 된다. 모든 국가는 매일 24시간 방송을 하며, 국영방송은 방송시간을 채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싼 방법은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이다. 유사하게, 가장 스펙터클한 영화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사오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에 와서야 헐리우드의 생산품에 압도당하게 된 나라이다. 중국인 영화관람객은 점점 더 국제영화를 무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미국의 영화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다. 위성으로 직접 방송되는 정보들이 이에 첨가된다. 1996년말 지구를 도는 위성은 700여개로 추산된다.

어찌 됐든 눈에 띄게 이동은 확산되고 있다. UNESCO는 문학에서부터, 텔레비전,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문화상품에 있어서 무역의 자원을 살펴보았다. 산업국가의 몫이 1975년부터 1990년 사이 90% 이상에서 7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텔레비전이 여전히 가장 많은 시청자를 가지고 있으나, 인도와 홍콩의 영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드라마,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중음악이 전 세계적인 관객을 지니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외국상품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잘 만들어진 자국의 상품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어찌 됐든 사람들은 자국의 문화를 외국의 대안상품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주송출국가 중에서 필리핀은 외국, 거의 전적으로 미국 미디어의 침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일 것이다. 텔레비전 유형에 대한 1994년 보고서에서 외국프로그램이 방영시간의 32%를 차지하고, 시청한 프로그

램의 37%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 미디어의 침투를 넘어서, 세계적인 소비문화에 속한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품의 분배도 있다. 1996년 세계적인 상품의 브랜드는 19,000개의 레스토랑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맥도널드이며, 그 뒤를 코카콜라, 디즈니, 코닥, 그리고 소니가 차지하고 있다. 이주수입국의 영사관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상표는 새롭고도 점차 잡종화 되는 소비문화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맥도널드는 일반적으로 강요된 획일성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심지어 “애플파이”와 “밀크셰이크”와 같은 메뉴에까지 모든 품목들이 번역되지 않은 채 겨우 아랍어로 표기가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이 반드시 그 나라의 대체산업을 제거하지는 않으며, 모두 산업국에서 온 것은 아니다. 필리핀의 줄리비와 같은 여러 웨스트푸드 체인은 개도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한 나라에서 성공한 광고는 곧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성공적인 네스카페 광고는 칠레에서 시작하였으나, 1996년에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이 세계를 더욱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1996년 말, 뉴욕 타임즈지는 맥도널드의 지사가 있는 나라끼리 전쟁에 돌입한 적은 없다고 보도하였다.

전 세계적인 문화 환경이 눈에 띄게 복잡하게 되어 사회학자인 아주 아파두라이는 일련의 새로운 “영역”을 통하여 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민족의 영역”은 사람의 범위로 관광객, 이민자, 난민과 같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나라에 영향을 주며 세계를 떠돈다. “테크노의 영역”은 한 지역의 상품이 거의 모든 지역에 다다르게 하는 기술의 유동적인 형태- 예를 들어 리비아의 아랍 자마하리아의 제철 공장은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같은 곳에서 이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재정의 영역”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숨가쁘게 빠른 속도로 밀려오는 자본의 물결을 지칭한다. “언론의 영역”은 다국적미디어의 보급망과 이들이 제시하는 이미지를 지칭하며, 이는 복잡한 이야기와 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 “이데올로기의 영역”은 “자유” “복지” 그리고 “권리”와 같은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반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진다. 아파두라이는 현대의 문화는 이러한 모든 “영역” 사이의 괴리가 더욱 증가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괴리 중 하나는 사람들을 현금경제로 끌어내어 -그리고 그 대가를 아주 조금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믹스텍 인디언들은 점점 더 살고 있던 남부를 떠나, 미국으로 현금작물을 수출하는 북부의 거대한 농장에 고용된다. 그들은 겨울 야채 생산을 하기 위하여 시날로아로 가며, 토마토나 다른 야채를 경작하기 위하여 바하 캘리포니아로 간다. 일단 그곳에 가서 돈을 벌게 되면, 그들이 더 북쪽으로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주에 있는 믹스텍인들의 77%가 미국에 이주하기 전에 바하나 시날로아, 또는 양 지역 모두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일단 외딴 시골에서 이동한 후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네트워크에 접하게 되는데, -양 지역의 일은 매우 비슷하기에, 일하고 난 후에는 이주자들이 일자리를 찾기는 더욱 쉬워진다.

현금경제에 더 깊이 관여하면 이주가 촉진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주에 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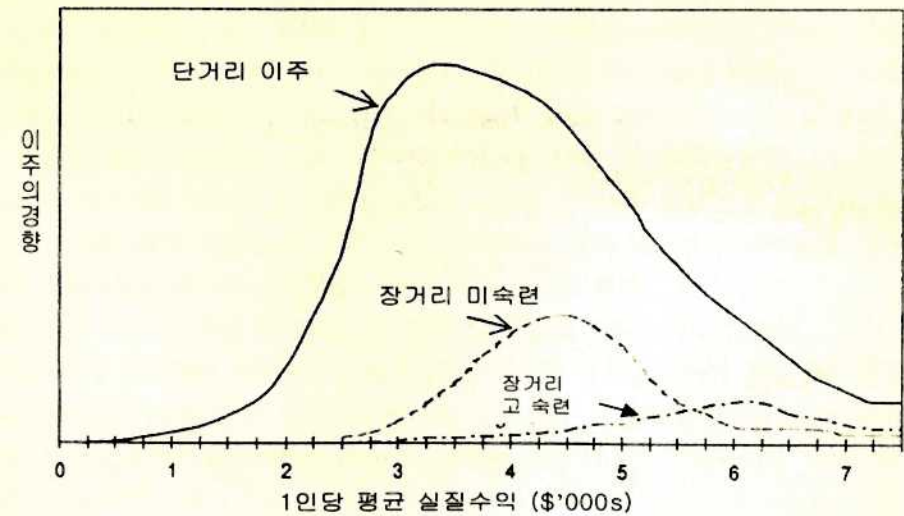
경비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저축해야만 한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하루에 4\$가량을 버는 사람들은 일년 내내 일하여야만 탄지에르에서 스페인의 남쪽 끝에 있는 타리파에 이르는 10마일에 달하는 위험스런 여행을 할 수 있다. 1996년에 이 불법적인 여행경비는 600\$에 달하였다. 합법적 이주이더라도 경비는 매우 비싸다. 필리핀에서 송출업자는 이주자에게 약 200\$ 가량을 받도록 공식적으로 허용되나, 사실상 일본이나 대만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4,000\$까지 내야만 한다. 미국으로 가는 남아시아와 중국의 이주자들은 훨씬 더 많이 내야만 한다. 1996년에 체포된 여러 이민자들은 아시아, 니카라과, 멕시코에서 중간상에게 세차레에 걸쳐 28,000\$를 지불하였으며 모스크바, 아바나, 마나구아, 과테말라, 그리고 멕시코시티에 있는 안전한 집에서 머무르며 여행을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이주자들이 선금으로 지불하지는 않는다. 농촌의 가족들은 이주 경비를 대기 위하여 막대한 이자로 꾸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다른 경우, 송출업자와 계약자들은 이주자들의 미래의 수입에서 돈을 취하는 것이 더욱 이익에 남는다는 것을 깨달아 -심지어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자리에서 감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되었든 이주자들이 경비의 얼마만이라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제적인 성장은 이주에 대하여는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 4) 이주의 포물선

발전이 주는 혼란스런 영향들 -사람들을 살던 지역에서 흔들어 놓아, 새로운 가능성을 높이고, 이주 경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국가가 최소한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 이주송출이 줄어든다기 보다는 늘어나리라는 것이다.

도표 7.1 이주의 포물선



출처 : Fischer, P., and T. Straubhaar, 1996.



이는 일인당 GDP가 오르면 이주송출도 처음에는 성장하지만,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기에 "이주의 포물선"(migration hump)이라고 시각적으로 표현 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유럽 남부에서의 이주송출 형태에 근거하여 보면, 샘플로 주어진 나라들에게 전환점이 되는 일인당 GDP는 평균 3,615\$라고 추산되는데, -터키의 경우 3,400\$에서 그리스의 4,100\$까지 나타난다. (1985년의 국제 달러화 기준)

그러나 가장 분기점이 되는 기준은 잠재적 이주자들의 기술수준과 이주경비와 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도표 7.1에 나타나 있는데, 이 도표는 이동의 유형을 정형화 된 양식으로 보여준다.

## 5) 결론

세계화의 현대적인 측면에 휩쓸린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중의 하나는 불확실성의 증가이다. 전 세계의 모든 공동체들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환경은 점차 더욱 역동적으로 되고 있으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경제적인 충격이 전 세계에 즉시 파급이 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불안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의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경제에 휩쓸리고 있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과정들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고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더 많이 제공할것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이러한 연계로 인해 혜택을 보더라도 더욱 이주해야만 하게 만들 것이다.

## 8. 국제적인 기술의 교류

국제이주에 관한 우려는 일반적으로 미숙련노동자에게 집중이 된다. 숙련노동자나 전문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대우받는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끌어들이려고 애쓴다. 세계화는 이러한 인재를 늘리고, 고용주를 새로이 바꾸거나 또는 초국적기업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부를 옮김으로서 기술을 좀더 자본화할 기회를 이들에게 주게 된다

### 1) 두뇌의 유출

대부분의 전문가는 부유한 나라들을 여행하거나, 또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옮기며, 그리고 전문가도 미숙련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주의 주요한 동기는 수익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1991년에 마닐라의 정규간호사는 한 달에 단지 146\$만을 벌 수 있었으나, 페르시아만에서는 500\$ 가량을 벌 수 있었고 미국에서는 3,000\$을 벌 수 있었다. 그 결과, 최근 몇십년간 필리핀은 간호사를 매년 3,000명 이상 송출하였다. 그러나 전문가의 이주는 단지 월급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전공 지식을 시세에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이 개개인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이러한 "두뇌의 유출"은 노동자의 훈련과 기술에 투자를 해온 국가에게는 상당한 손실이다. 오늘날, 약 백오십만명의 개도국 출신 숙련기술자들이 서유럽, 미국, 일본, 호주에 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아프리카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약 60,000명의 전문가들을 잃었고, 그 이래 지속적으로 매년 20,000명씩 잃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가나는 1980년대 초기에 훈련된 의사의 60%를 잃었다. 최근에 동유럽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나라의 하나이다. 1995년에 7,000명 이상의 교수와 전문가를 잃었다. 이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달에 겨우 50\$가량을 벌기 때문이다. 1996년의 한 연구는 불가리아 과학자들의 약 40%가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이주는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향상을 생각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는 전문가의 이민을 선호하여 이민정책을 왜곡시킨 수입국의 정책에 의하여 조장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교육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매우 조직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사업에 최소한 250,000\$을 투자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를 받아들이고 있다. 1997년에 허가 받은 205,000명중에서 113,000명까지가 기술이나 투자이민으로 오게 되었다. 호주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998-1999년 기간 이주정책으로 온 사람중 반 이상이 "기술

보유자"이다.

미국 또한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기술을 보유한 이민자들의 비율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의 교육적인 자격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나머지 인구와 비교하여 소득면에서 평가된다.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이민한 남성의 평균 소득은 미국노동자들의 99%에서 89%로 떨어졌다. 그러나 나라별로 상당한 불평등이 보인다. 유럽인과 캐나다인들은 자신의 수준을 유지하여, 미국인보다 10%에서 20% 많이 벌고 있다.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득은 사실상 성장하여 88%에서 110%가 되었다. 소득의 하락 대부분은 많은 수의 멕시코인들 때문인데, 평균 66%에서 56%로 떨어졌다.

더욱이 최근에 숙련노동자에 해당되는 미국비자-취업비자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1993년에서 1995년 사이 취업비자의 수는 147,000에서 85,000으로 줄어들었으며, 현재에는 합법 이민자들의 12%만이 해당된다. 현재 이들의 반 이상이 아시아 출신이다. 중국 한 나라가 취업 이민의 16%를 제공하며, 그 다음이 필리핀(12%) 그리고 인도(8%)이다.

## 2) 교육의 세계화

전 세계에 걸친 전문가의 이동은 상급교육이 세계화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1993년 약 150만명으로 추산되는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아시아인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주며 이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 사이 해외로 유학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학생의 수는 10,000명에서 140,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에 미국 공학박사학위의 62%가 외국학생이었는데, 대개는 아시아인이었다. 수학, 컴퓨터, 자연과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높다.

많은 이들 전문가들이 부유한 나라에서 수련을 마친 후에는 고국으로 향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빼앗겨버린 것이다. 외국출신 박사의 70% 이상이 미국에 남게 되며, 그들 대개는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1979년 이후 외국으로 간 220,000명의 학생 중 단지 75,000명이 되돌아 왔다고 중국공무원들은 1995년 말하였다.

## 3) 초국적인 고용주

전문가 대부분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나 일부는 초국적기업내의 한 지부에서 다른 지부로 전출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초국적기업은 국외파견 근무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고용한다. 1989년 통계를 구할 수 있었던 미국의 초국적기업 중에서, 외국지부의 전체 고용인 중 단지 0.3%만이 해외 파견된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이 고위 경영직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율이 개도국의 지부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다. 1980년대 말 미국 회사의 예를 보면, 유럽 지부의 40%가 해외 파견이 된 고위 경영자가 있었으나, 중남미에서 그 수치는 53% 이었다. 그러나 지부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 비율은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 현재 이

와 같은 일이 중국에서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1995년에 약 450,000명이 파견되어 경영직에 있었다.

일본회사는 외국파견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지부 전체 고용의 단지 4%일뿐이다. 역시 이러한 비율은 고위직이 훨씬 높다. 한 일본회사의 고용인의 예로 보면 유럽지부의 고위경영직은 77%가 파견자였지만, 중남미지부에서는 83% 이었다. 일본인경영이 높은 비율인 이유는 고위경영자들이 일본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통신에 대한 우려 때문일지도 모른다. 일본어는 일본 외에는 그다지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언어의 문제이다. 그러나 또한 일본회사의 경영 스타일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최근 초국적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는데, 여전히 국제적인 경험을 지닌 두뇌집단이 무척이나 적다. 때로는 이로 인해 노동분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칭따오에 있는 한 한국인 감독은 그 지역 직원에게 한국인은 "고된 노동과 혼란으로 가난을 극복하였다"는 설명을 한 뒤에 집 창문에 돌이 던져진 일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 경영자들이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일로 스트라이크와 노동소요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그 나라 경영자들을 고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영국 북동부에 있는 가정용품 공장을 위하여 영국인 경영자를 고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외국으로 파견된 스태프들은 지부경영에 힘써야 하며 또한 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술의 차이를 메워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경영의 "국제화"된 기축을 형성하려는 시도로서, 이러한 목적은 후에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제3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회사 지부의 고위경영자 중의 약 7%가 제3국인 이다.

해외파견은 앞으로 몇 년간은 그다지 크게 성장할 것 같지 않으며, 외국인직접투자자와 같은 비율로 성장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주된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봉급은 높다. 기본 봉급의 10-20%를 추가로 주는 것 외에도, 주택과 학교를 위한 여러 가지 추가부담 뿐만이 아니라 재배치를 위한 비용도 들어간다. 외국의 누군가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기본봉급의 두배가 필요하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보면 해외파견 경영자 일인당 평균 비용은 131,000\$이다. 영국 한곳에서만 매년 48,000명 가량이 회사를 이전하는데, 이는 초국적기업이 숙련된 스태프를 국내외로 이전하는데 매년 63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찌됐든 더욱 싼 가격으로 지부를 움직이는 방법을 기술이 제공하고 있다. e-메일에서 화상회의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효율적인 통신시스템은 직접 참석해야할 필요를 줄여가고 있다. 1995년에, 앨라배마에 있는 데임러-벤츠의 새 공장 경영자들은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본사와 매일 두시간에 걸친 통신회의를 하였다.

## 지부국가의 전문가

비용을 떠나서, 그 나라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지부국가의 언어와 관습에 더욱 익숙하며

노동자를 더 잘 다루고 시장의 기회를 더 잘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 있는 미국기업은 말레이시아인을 고용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한다. 1991년에, 이 나라의 관청에 등록된 사무실이 있는 180개의 미국 회사 중에서, 66개는 말레이시아인 경영자가 있으며, 이래로 이러한 과정이 더욱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지자, 지부국가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인재를 더 잘 활용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시티은행은 인도, 홍콩, 싱가포르의 인력을 고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휴렛팩카드도 또한 지부국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향상된 R&D를 위해 고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키보드를 조립하기 위하여 1970년에 시작한 한 회사의 공장은 이제 휴대용 잉크젯 프린터를 위한 전 세계적인 R&D와 생산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용 디지털 어시스턴트와 계산기를 위한 기지이기도 하다. 비용 또한 중요한 동기이다. 1994년 숙련된 전자공학자는 미국에서 매년 100,000\$까지 벌 수 있었으나, 대만에서는 25,000\$를, 그리고 인도나 중국에서는 10,000\$이하에 고용할 수 있다.

#### 역 두뇌유출

초국적기업이 지부국가의 언어와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노력은 너무도 치열해 역 두뇌유출이 추진되어 -산업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개도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민의 주된 목적지인 미국은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온갖 나라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이다. 대만에 있는 미국 초국적기업의 조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35% 정도가 중국혈통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대다수는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일하려고 남아 있다가, 귀화하여 미국인이 된 사람들이다. 후에 이들은 초국적기업에 고용이 되어 그 곳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다른 이들은 "유사 파견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 대만유학생으로 아직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 고용된 사람들이다. 대만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이들은 중국 본토로 보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회사들은 대개 중국어를 잘 하는 화교의 자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태생 화교들은 이제 홍콩과 중국에서 많이 필요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사람에게 이는 경영자보다는 기술적에 머무르도록 하는 "유리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 아시아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자와 유학생이 적은 유럽국가들은 이러한 기회가 많지 않으며, 초국적기업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인이다.

#### 4) 귀환

아시아의 초국적기업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화교들에게 이는 "귀환(return migration)"에 해당한다. 귀환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미국이민자들을 보면, 도착한 뒤 10년 이내에 20%까지 미국을 떠나며, 3분의 1은 일생 중에 떠난다. 1990년대 중반 약 200,000명의 외국태생 미국인이 매년 미국을 떠났다. 이들 모두가 전문가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몇몇 아시아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특히 한국과 대만- 새로운 경제변영의 기회를 취하려고 되돌아갔다.

한국은 오래 동안 이민을 보낸 나라이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 약 750,000명이 이 나라를 떠났는데, 이 수치는 1976년에 46,533명으로 절정에 달했으나, 1994년에는 14,604명으로 줄었다. 일부는 여전히 이민을 가고 있지만, 그 수치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최고치를 이룬 시기 한국인 이민자들은 귀환자보다 19:1의 비율로 많았다. 1994년에는 단지 2:1이었다.

때로는 경제침체에 미국을 떠나기도 한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일부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을 접하며 폭력과 범죄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최소한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국이 훨씬 살기 좋다고 생각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이들 귀환자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건너가 식품점이나 식당을 개업한 사람들은 지속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고, 자신의 전문기술을 포기하고 상점주인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 특히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더 더욱 돌아가고 싶어하였다. 고려대 생명공학부학장이 된 코넬대학의 교수는 재미교포 교수로 모든 스텝을 채웠다. 유사한 두뇌집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더 많은 교포를 선생, 변호사, 과학자로 고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

대만에서 이러한 이동을 렌카이후이리우(人材回流) -인재의 귀국- 이라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첨단기술 도시인 신주의 항공우주국이나 여타 산업체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일이 30-40% 봉급이 깎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이들은 대만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며 기꺼이 되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이전이 언제나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의 모든 수준의 경영자들 사이 확고히 주고받는 문화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의 더욱 엄격한 사업방식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 또한 귀환자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래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 5) 새로운 기술의 교환

초국적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파견자 외에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의 아시아의 빠른 성장은 비아시아인도 오게 하였다. 고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서구의 많은 젊은이들은 아시아의 전망이 더 좋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97년에 이르기까지 홍콩은 특별히 사람들을 끌어 들였다. 이들이 모두 고액을 받는 파견자는 아니었으며 다양하게 섞여 있었다. 일부는 피자가게나 가정부로 일하였는데 홍콩인들에게는 FILIH(Failed in London, Try Hong Kong 런던에서 실패하고 홍콩에서 시도하는 자)로 통하며 이들은 현지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싱가포르 재정분야에 고용된 젊은 유럽대학졸업자들은 현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젊지만 일자리가 없는 영국건축가들이 건설업에서 일하였다. 회사는 자국의 두뇌를 키우는 것을 장려하며 진급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는 더욱 동등히 겨루어야 한다.

서구인들이 아시아로만 향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경영대졸업자들은 더욱 넓은 범위의 목

적지를 선택하고 있다. 다른 목적지로 대개 동유럽과 중남미 (특히 NAFTA가 시작되었을 때의 멕시코)를 정하고 있다. 외국으로 향하는 미국 젊은이는 1990년대 초에 10%에서 25%로 늘었다고 한다. 스텐포드 경영대는 1989년 졸업생의 6%에 비해 1994년도는 14%가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동시에 개도국사이를 훨씬 더 다양한 인재들이 헤매다니고 있다. 다시, 아시아는 기술과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정규적인 공급을 능가하며, 이러한 현상의 중심지이다. 예를 들어 중국어와 영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매우 인기가 있다. 많은 말레이시아인이 인도네시아의 은행이나 다른 회사에서 단기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도 이 곳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그리고 중국남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리핀 전문가도 이 지역을 옮겨다니고 있다. 특히 회계사가 요구된다. 필리핀인이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의 고위직을 점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인 경영자도 처음으로 일본에서 공급과잉이 되어 다른 아시아국가로 향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예기치 않게 진전이 되면, 일부 전문가는 미국으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오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들은 이 나라의 임금을 깎을 수 있다. 이는 컴퓨터산업의 경우 특히 명백하게 나타난다. 1995년 한 거대 뉴욕보험회사는 250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해고하고, 인도 출신의 저임금 임시근로자를 고용하였다. 심지어 백악관조차도 값싼 기술자의 도움에 의존하여, 대통령의 통신추적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인도출신 노무자를 수입하는 회사를 사용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과학자, 건강관리 노동자나 그 외의 사람들이 비이민 상태로 받아들이는 H-1B 비자로 미국에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 샷"으로 알려진 직장계약회사에 의하여 수입이 되는데, 이 회사는 외국인전문가를 뽑아 미국회사에 고용시킨다. 이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고용주에게 노역계약을 하게 되는 이러한 수입된 전문가를 "테크노 브라세로스(techno-bracers)"- 이주 농장노동자와 비견되는 하이테크 노동자들-이라고 부른다.

## 6) 결론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 전문가 이동은 양적으로 증대하지는 않아도 더욱 복잡한 형태로 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이동에 대해서 저항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고용의 사다리 상부의 빈자리를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업체가 단기계약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동력 있고, 교육받고 기술이 있는 간부를 개발함에 따라, 값싼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더욱 짙은 임금으로 일해야 한다고 느끼는 본국 전문가들의 강한 저항이 생길 것이다.

## 9. 이동의 가속화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모든 짐 중에서 운반하기가 가장 어렵다." 비록 그 성격은 달라졌지만 이 말은 그 어느 때 보다는 오늘날 사실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일 것이다. 산업국의 정부는 자국의 국경을 더욱 경비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을 들어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어찌 되었건, 최근 일련의 발전 -특히 세계적인 통신과 교통의 확장, 그리고 국제 이주산업의 발전은 이주자의 이동을 조장하였다.

### 1) 미디어로부터의 메시지

대개는 텔레비전 덕분에, 대부분의 잠재적 이주자들은 목적하는 나라의 부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이동은 이주자의 이동과 직접적인 연관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어찌 됐든 점점 더 사회가 세계화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한다. 사실, 우리는 "세계적인 문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단순히, 이는 도처에서 더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예상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게임 쇼를 방영하는 스페인의 텔레비전을 북아프리카의 일부지역에서 볼 수 있다. 한 국경수비대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를 보고 스페인이 천국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더욱 전반적인 수준에서, 뉴스와 다국적인 드라마의 이동은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하게 한다. - 어디든 고향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민자들이 도착한 후 새로이 자기민족의 미디어의 품에 접하게 되면서 입증된다. 대부분의 꽤 큰 이민공동체는 고유의 신문과 때로는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밴쿠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화교공동체가 있는데, 현재 세계의 중국어 일간신문이 있고, 세 개의 중국어 라디오방송국, 그리고 두 개의 텔레비전방송국이 있다. 이들 미디어들은 고국의 뉴스 -그리고 일반적인 국제뉴스를 훌륭히 제공한다. 미국에는 스페인어 TV방송국이 거대한 스페인어공동체를 잘 지탱해주고 있다. 텍사스대학의 페테리코 스페르비가 말하기를, 스페인어 네트워크는 스페인어 자체와 함께 "미국전역에 걸쳐 라틴인의 정체성을 밀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민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미디어들은 그 외의 언론이나 텔레비전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1993년 미국의 한 법무장관이 미등록이민자를 유모로 고용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영어권 신문들은 이를 일하기를 원하는 중산층여성의 고난을 밝히는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스페인어권 미디어들은 가정부나 유모로 일하는 스페인어권 여성을 찾아내어 그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기사화 하였다.

이러한 방송국들은 또한 미국에 관한 정보를 중남미에 알리는 근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하

다. 유니비전이나 경쟁사인 텔레문도는 중남미의 거의 모든 케이블에서 볼 수 있다. 더 가난한 나라의 군소 방송국들은 미국의 방송속보를 녹화하여 자사 뉴스프로그램에 쓰고 있다.

## 2) 교통과 통신

매스 미디어는 이민자들의 여행을 완화시키는 정보의 국제적인 이동의 한 부분이다. 나라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를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국제적인 통신의 빠른 성장, 그리고 가격의 저하이다. 1994년에 국제전화 사용시간은 약 530억 분에 이르는데, 이는 10년 동안 3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이 국제 비즈니스의 수요로 인해 촉발된 한편, 이주자들은 고국과 연락을 취하는 유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왔다. 개도국은 산업국에 비하여 전화연결이 훨씬 뒤지기에, 도시에 가족이 사는 경우에는 쉽다. 칠레나 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조차도 1995년 전화선의 반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성방송과 이동전화기가 이들 국가의 취약한 기간산업구조를 통신세대로 도약하게 하여 이러한 차이는 급격히 좁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필리핀에서 인구 천명 당 25개의 전화가 있었으나 이동전화는 13개가 있었다.

통신회사는 이민자 시장을 지체없이 이용하였다. 미국에서, 장거리 통신업자는 새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 선전용 상품을 발급하고 각각의 공동체에게 고유의 국경일에는 특별 할인요금을 제공한다. 일본에서, 이민자들이 고국에 전화하려고 공중전화에 줄을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텔라비브에서, 할인 전화요금을 제공하는 많은 상점에서는 인도, 에콰도르, 필리핀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들이 놓여 있다.

엘살바도르의 한 연구가에 의하면, 어떤 마을이든 주된 사고 장소는 더 이상 교회나 광장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람 또한 신부나 시장이 아니다. 사회 활동의 중심지는 안텔 (엘살바도르의 전화국)이며, 중요한 사람은 미국으로 연결을 해주는 전화국직원이다.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산호세시의 안텔직원은 매달 미국으로 350에서 400번의 전화를 연결하는데, 이들 모두가 수신자가 요금을 내는 "콜렉트 콜"이며, 20분에서 90분 가량을 지속한다.

통신은 전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휴스턴의 한 과테말라 단체는 고향인 산 크리스토폴 토토니카판에 있는 가족의 생일잔치를 정성스럽게 마련하기 위하여 팩스를 사용한다고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팩스의 사용은 참가자를 모으고, 전통 양식을 따르고, 의례용품과 음식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더욱 높은 수준의 단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민자들은 점점 더 많은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주된 수입국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현재 최신의 정보와 규제를 제공하고 있다. 각기 다른 민족사이의 문화적인 연결을 해주는 사이트도 있다. 미국에서 200명 이상의 "이민변호사"가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통신의 발전은 교통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이는 1980년과 1996년 사이 국제여행과 관광을 두배 이상으로 늘게 하였으며, 이주에 대한 장벽도 크게 줄어들었다. 많은

이주자들이 부유한 나라에 관광으로 입국하여 비자기한 보다 오래 머문다. 예를 들어 몇 년전에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를 포함하여, 가난한 나라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심지어 비자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전 세계의 어느 수도이건 이제는 도쿄와 파리에서 몇 시간이면 도착한다. 미숙련노동자들조차도, 비행기경비는 산업국에서 몇 달치 봉급에 해당할 뿐이다.

## 3) 이주자들의 네트워크

세계적인 통신시스템의 규모와 다양성이 더욱 증가하여 국제적인 이주가 더욱 쉬워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통신망과 마찬가지로 인적인 네트워크-전 세대의 이주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송출국과 수입국사이의 연결-도 중요하다. 등록이 되었건 안되었건, 목적지인 나라에 아무런 연결-동포를 위해 고용에서 거주지까지 모든 것을 처리해줄 사람이 없이 여행할 이주자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이러한 인망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집을 방문하는 것은 고국의 사람들이 최근의 상황을 알도록 하여준다. 198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민간 필리핀인에 대한 한 연구에서 보면, 비자, 그리고 모든 이민 수속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대사관이나 여행사가 아닌 개인적인 인망을 통한 것이다.

이러한 인망은 합법적인 비자를 얻는데 가장 중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민규제를 강화하고 입국허가를 줄였기에, 대개의 사람들은 가족과 합류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방법이 되었다. 1996년 미국에서, 가족과의 합류가 이민의 6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호주의 1998-1999년도 이민계획은 이민자들의 45%가 가족과 합치기 위해 올 것이라 추정한다. 가족과의 합류는 유럽에서도 가장 중요하여 영국이민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미등록이민자들에게는 유혹이다. 네덜란드로 가는 터키의 노동이민은 현재 멈추었지만, 그 곳의 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아주리라는 희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입국을 계속하고 있다. 가족이민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민자들의 민족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주된 이유이다. 일부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욱 열성으로 가족을 데리고 오려 한다. 미국의 아시아출신 정착 이민자들은 유럽출신보다 친척이 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가족과 친구와의 인망은 또한 새로운 공동체에 정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도착을 하면 머무를 곳이 있을 것이다. 캐나다로 이민한 브라질인에 대한 1990년 조사에서 처음 도착을 하였을 때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물어 보았다. 39%는 먼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친구집에 머물렀고, 그 외 20%는 친척집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인망은 아마도 일자리를 찾으려 할 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일단 이민자들이 특정 직장이나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이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러한 인망은 종종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하여 1980년대 중반 멕시코 아리스코주의 산티아고 출신의 한 이민자가 로스앤젤리스의 양고기공장의 노동조합 대표가 되었을 때, 그는 같은 마을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이와 유사한 연결이 고메즈 화리아스 마을과 캘리포

니아 와스빌의 딸기농장 사이에도 형성이 되었다. 이 곳에 고메즈 화리아즈 출신의 이주자 90%가량이 일하는데, 초기에 온 사람들이 특정 경작자들과 관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홍미롭게도, 이와 같은 연결이 멕시코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명백히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남부 치아파스주의 커피경작은 과테말라의 서부고산지대에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주해 온 가족들에게 무척이나 의존하고 있다. 고용인들은 전형적으로 매년 같은 장소에서 일하며, 친척과 친구들을 연결시켜준다. 유사한 연결이 많은 다른 나라의 공동체에게도 생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동 아나톨리아와 흑해연안 출신의 터키노동자 수백명의 집단이 베를린에 서로 모여서 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고용의 교류는 너무도 강력하여서 이민공동체 고용의 대부분이 좌우된다. 이는 미숙련 미국인노동자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가 중남미계 이민자들에게 넘어가는 미국에서 주목할 만하다. 로스엔젤리스의 호텔과 레스토랑들은 다른 고용인의 추천에 의하여 대다수를 뽑는다. 그 결과 부업일은 멕시코노동자들의 아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고용주는 이러한 것에 만족을 하는데 일자리에 마땅한 자격을 가진 직원을 찾는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한 추천자는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올바르게 일하도록 압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거대 기업에서도 일어난다. 1990년 멕시코이민자들은 로스엔젤리스의 80개 거대 제조기업 중에서 53개 기업에 많은 수가 일하고 있었다. 이민 노동자들은 자기 친구중의 누가 그만둘 것인지 알고 있기에, 고용주보다도 빨리 잠재적인 빈자리를 알고 있다. 인쇄공장의 한 감독관은 뉴욕 타임즈지에 "일자리를 그만두기도 전에 추천을 한다. 그 곳의 모두가 우리 보다 먼저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민자의 인망을 통한 고용에 대한 연구는 대개 남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같은 과정이 여성에게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하와이의 필리핀 여성에 대한 한 조사에서 보면, 여성은 친척이나 친구를 통하여 자신의 첫 직장을 찾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를 통해 사적인 고용업체를 접하게 되고 심지어 비공식적인 훈련도 받게 된다. 그러나 여성이민자들이 지닌 어려운 점은 이러한 인망은 미천한 "여성"들의 일자리에 한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고국에서는 비서였거나 선생이었던 여성들이 가정부나 간호보조원과 같은 저임금의 서비스직을 하게 된다.

#### 4) 이주 산업

비공식적인 인망을 통해 이민과 고용이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지만, 이동의 규모는 또한 많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인 "이주산업"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노예시대 이후로 노동자들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졌다.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유럽 국가들은 지원자의 공급을 추진하는 고용사무소들을 만들었다.

#### 국가가 관여한 송출

그러나 현재, 이 조직체 대부분은 송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자체가 관여하고 있다. 상당수의 아시아국가들은 실업을 줄이며 송금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서, 이민이 주는 잠재적인 혜택을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송출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이러한 수익의 얼마간을 얻을 수 있으나, 여권비나 여행세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요금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아시아의 송출국가 중에서, 베트남이 과거에 가장 규제가 심하였다.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기 이전, 베트남의 공공기업은 동유럽의 정부와 노동자 공급협정을 하였다. 1980년대 말 한때는 6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고국으로 되돌아갔고 베트남 정부는 다른 시장을 찾고 있다. 중국 역시 국영기업을 통하여 송출을 조직해 왔다. 1994년, 무역과 경제협력부(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는 200,0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에 있으며, 대부분이 노동협정에 의하거나 해외 건설계약을 맺고 있는 56개의 국영기업중의 하나에 고용되어 있는데, 30,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1995년 홍콩의 신공항 건설에 고용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1980년대 동안 한국은 노동자를 이용하여 해외의 건설계약을 완수하였으나, 또한 국영인 해외개발공사를 통하여 외국인 업주를 위한 노동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국가의 간여는 사기업과의 협력이나 또는 이들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한국식의 모집책을 따르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필리핀 해외취업청을 통하여 송출업체를 허가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허가된 업체들은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연회비를 내야하며, 복잡한 일련의 규제를 따라야만 한다. 정부는 또한 송금절차도 마련하였고, 이주자들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수입의 일정부분 - 육상 노동자의 경우 50-70%-를 보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나라는 해외로 노동자를 송출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만 관여한다. 1993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2%이하의 노동자들만이 공공기관에 의지하였다.

#### 노동브로커들

많은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여행을 하지만, 현재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브로커들을 이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다카 공항의 출국 수속장은 말레이시아나 페르시아만의 일자리를 위해 대량으로 고용되어 노동계약자 유니폼을 갖추어 입은 예비 이민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큰 혼잡을 이룬다. 지난 몇십년 동안 국제 노동시장의 발전은 송출국이나 수입국 모두에게 아주 새로운 고용산업을 만들어 놓아 -돈을 내면- 일자리를 찾아주고 여권, 비자, 교통, 그리고 거주지 등과 같은 세부사항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것은 이주자들의 수입 대부분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모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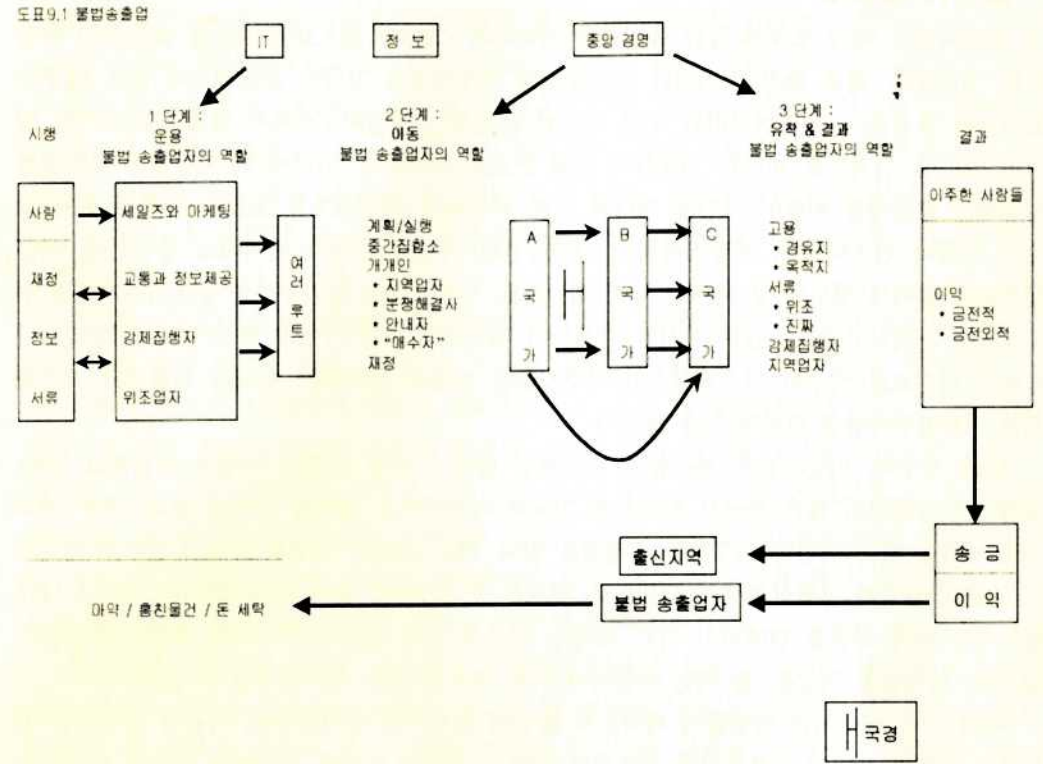
들은 이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5,000페소(192\$)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일본의 일자리에 대해서 그들은 120,000페소를, 대만에 대해서는 100,000페소를 받는다. 태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국의 노동부는 브로커들에게 지불하는 최대의 요금은 2,240\$이라고 1995년 명기하였으나, 대만에 있는 수천의 태국노동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이 지불했다고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앞으로 받을 3-4개월치의 임금 -때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데 대개 토지나 집을 저당 잡힌 돈으로 이를 지불한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려는 미숙련노동자는 2,000\$까지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일년 수입 예상치의 80%가 넘는 액수이다. 어느 곳이나 브로커들은 비슷한 요금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체코에서 1996년에 대부분 동유럽 출신인 약 250,000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시간당 2.5\$을 받는 한 우크라이나 노동자는 임금의 반을 브로커에게 지불하여야 했다고 말했다.

### 이주자들의 불법송출

일부 브로커들은 고용주나 노동자들을 연결해 주는 정도 외에는 하지 않으나, 다른 이들은 불법 송출에 관여를 하는데 때로 사람들을 장거리로 이동시키며, 그 과정에서 항공사직원에서 이민국직원까지 많은 관료들에게 뇌물을 준다. 목적지에서는 또한 거주할 곳을 준비할 것이다. 1993년 유럽에서 미등록이민자들의 약 15-30%가 불법송출업자를 이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망명하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 20%에서 40%가 여행 일부나 전구간 이들을 이용한다.

불법송출은 무척이나 복잡한 사업이다. 이 과정의 여러 단계를 분석하려는 첫 시도로서 솔트와 스테인은 도표 9.1을 만들어 내었다. 불법송출은 매우 수익맞는 사업이다. 동유럽 국경을 넘는 조직화된 여행이나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보트여행은 약 500\$가량이 들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복잡한 여행에는 약 30,000\$ 까지 지불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송출업은 일년에 약 50-70억\$ 가량의 소득을 만든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이러한 루트를 발견하면, 이 무역을 깨부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송출업자들은 대개 한발 더 앞서 있다. 한 루트가 폐쇄되면 다른 루트가 개발이 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수만의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도착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는 좀더 복잡한 루트로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 1996년 미국 이민귀화국(the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은 수천의 미등록 아시아인들을 러시아, 쿠바, 중앙아메리카를 거쳐 미국으로 조직적으로 밀입국시킨 조직을 분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자들은 이 고되고 비밀스런 여행을 위하여 각기 28,000\$까지 지불하여야 했는데, 이 여행은 멕시코의 레이노사 마을에서 절정에 달하여, 이곳으로부터 10대들이 이들을 튜브로 리오그란데를 거쳐 텍사스주의 맥알렌까지 태워 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이동은 위조서류를 위한 대규모 시장을 만들어 놓았다. 방콕은 -특히 중국출신 이주자들을 위한- 주요 생산기지가 되었다. 주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여권



Source: Salt, J., and J. Stein, 1997.

이 세계 여러 나라에 보내져 적당히 고쳐지게 된다. 이러한 위조작업에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며 (최근의 일본여권은 여권소유자의 사진이 표지에 인쇄된다.) 하나에 2,000\$ 까지 팔 수 있다. 이것을 방콕의 중국신문에 광고하는 여행사를 통하여 즉시 살 수 있다. 불법 송출업자들은 또한 가짜 노동계약서를 만든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불법송출업자들은 유명 회사를 차려서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이민희망자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얻도록 노동계약서를 발행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주어 이주자들의 이동을 가속화한다. 많은 경우에, 이는 소득을 가져가는 장기간의 용자이지만, 단기간의 지원도 또한 가능하다. "관광객"으로 아르헨티나에 입국하려는 볼리비아 농부는 쓸 돈이 1,500\$정도 있다는 것을 이민관료에게 보여주어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이자율을 자랑하는 유사은행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 한시간 정도 지나면 국경을 건너는데, 버스회사나 그 외의 사람들이 10%의 수수료로 필요한 돈을 이주자에게 빌려준다.

## 초국적 공동체

이민자들은 대개 고국과 강한 유대감을 지속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초국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 때로 특정 지역이나 마을출신의 이주자들은 고국의 프로젝트에 돈을 대주는 조직체를 형성한다. 파스아리바의 외딴 마을인 산호세는 산살바도르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져 있는데, 전적으로 미국의 친척들이 보낸 돈으로 살아간다. 미국에 간 사람들은 로스엔젤리스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고향을 위하여 돈을 지원한다. 후원금으로 도로는 포장되어 되고 새로운 병원이 건축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말리출신의 이민자 대개가 케이에스 출신인데, 이들 대부분은 40여개 정도의 잘 짜여진 협회 회원으로,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도록 수력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많은 유사한 단체들이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형성이 되어 -캘리포니아와 오레건으로 이주한 믹스텍윈주민 이주자들은 자립을 장려하는 협회를 설립하고 고향을 위한 지역발전사업을 위하여 돈을 모은다.

다른 경우에,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초국적인 삶에서 직접 파생된 사업을 설립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많은 소규모 사업들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주 외국으로 여행을 하는 귀환한 이주자들이 경영을 한다. 때로 그들의 여행은 뉴욕에 있는 도미니카인 소유의 금융과 부동산회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단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선물을 잔뜩 실은 이주자처럼 모이는 사람들이 갈 때는 완제품인 의상을, 올 때는 옷감이나 다른 재료를 실은 의류업자일 수 있다.

특히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이 에콰도르 출신의 오토바란 인디언인데, 이들의 초국적인 공동체는 유럽과 북미의 주요도시에서 침투되어 있어, 그곳에서 이들은 고향에서 수입한 다채로운 의상들을 판다. 많은 남자들이 유럽인 부인을 취하고 있는데, 부인들은 점차 남편과 에콰도르로 돌아가 그 곳에서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이 북미의 서부연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비행사"라 불리는 -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너며 생활하는 중국인 기업가를 만들었다.

이러한 초국적인 연계는 송출국에서도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이주자들을 잠재적인 반대세력으로 간주했던 독재 정부는 이들을 대개 저지하여 왔다. 민주화이전, 케이프 베르디의 정부는 이주자 단체를 의심하여 국외의 대사관이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이민자들의 조직체에 간섭을 하였다.

이러한 초국적인 연계는 아주 중요하게 되어서, 송출국의 정부들이 이제는 열심히 이주자들을 제도화하고 뒷받침 해주고 있다. 여러 시기에 걸쳐,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콜롬비아, 아이티, 인도,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파라과이, 그리고 상당수의 서인도제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은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2,000개의 포르투갈인 협회가 있으며, 그리고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적인 후원과 물품을 지원하고, 특히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포르투갈 문화와 언어를 배우도록 한다. 매 4년마다 이 공동체 대표자들의 세계회의를 개최하는데, 대개 수상이 참가한다.

1990년 멕시코정부는 재외 멕시코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는 정책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멕시코의 엘리트는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포초스-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로 역사와 전통이 없는 나라에 방황한다는 경멸이 담긴 말로 불렀다. 현재에는 이들을 더 넓은 범위의 멕시코국민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1996년 미국의 이민개혁과 규제에 관한 법률이 바뀌게 되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멕시코인들이 합법적인 미국시민이 되자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은 NAFTA 기간동안에 로비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욱 고국과의 문화적인 연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이 되었다.

인도의 재외인도인(Non-Resident Indian) 프로그램은 1980년대 초기에 시작하였는데, 이주자의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인도가 경제를 자유화하고 투자자들을 환영하기 시작한 이후에, 인도의 1,000만에 달하는 재외인도인은 (이들 중 650,000명은 미국에 있다) 대개 기업가로 활동 중이며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과거에, 인도 역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거절하였다. (19세기에 외국으로 간 인도인들은 돌아왔을 때 세밀한 정화의식을 거쳐야만 하였다) 이들 재외인도인 프로그램은 여전히 이러한 의심 -뿐 아니라 새로운 의심도 처리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이들 재외인도인들이 인도에 있을 때 사용할 잘 꾸며진 새로운 병원을 지을 때 반대가 있었다.

통신망이 강화되어 이러한 초국적인 공동체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오늘날의 이주자들은 많은 종류의 연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며, 두 개 이상의 지역이나 국가를 결속하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생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하여, 문화와 사회라는 개념은 단지 국경이나 지리적으로 국한이 될 수 없다.

## 5) 결론

일단 이루어지면, 국제 이주는 자체의 원동력을 발전시키고 -개인적, 상업적, 정부와- 복잡한 네트워크에 의하여 유지된다. 이제 대중매체와 개인적인 통신 모두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제이주는 덜 비싸고 부담이 안 드는 선택이 되었다. 세계화는 이동에 드는 정서적이고 재정적인 비용을 줄여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확장되도록 한다.



## 10. 이민에 대한 수요

정통적인 경제 이론의 논리에 의하면 만일 국제적인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면, 장기적으로 대량 이주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되리라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이주가 지속이 되리라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가설이 국제 이주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이론은 송출국의 “내보내는” 요인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이론은 수입국의 “끌어들이는” 요소를 강조하기도 한다. 어떤 이론은 개인적인 동기를 살펴보는 한편, 다른 이론은 사람들이 이주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살펴보기도 한다. 주된 가설은 아래와 같다.

### 신고전 경제이론

이 이론은 송출국과 수입국의 노동에 대한 수입과 공급의 차이를 고려하며,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률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살펴본다. 신고전이론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도록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가 통합되도록 야기하여 세계화가 점차적으로 이주를 줄일 것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 이 이론이다.

### 이주의 새로운 경제학

이 이론은 이주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개는 가족이나 친척 등의 집단에 의한 결정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해외로 한 명이나 여러 명의 가족을 보내면 직계가족의 수입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수입의 원천을 다양하게 하여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을 제공하게 된다. 만일 세계화가, 특히 자유화가, 고용의 안정성을 더욱 줄인다면, 가족들은 더욱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며 -위험을 분산해야 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

### 이중 노동시장의 이론

이 이론은 이주가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현대산업사회의 영구적이고 필수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불안정한 고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업이 필요할 때 해고하거나 재고용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내국인은 점점 더 교육을 받고 기대수준이 높으며, 대개 이러한 조건을 받아드리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이민자들은, 특히 계속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고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한다. 이론적으로 이 문제는 “하급”직에 대한 임금이나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로 파괴적인 효과를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야기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용주들은 이민노동자를 고용하는 더 쉬운 (그리고 더 싼) 방법을 선호한다.

### 세계-체제 이론

앞서 말한 이론들과 설명은 “세계체제이론”이라 불리는 것으로 통합이 된다. 이는 별개의 모델이 아니라 자본, 상품, 그리고 노동의 이동이 어떻게 서로 조합되고 얽히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대신에, 개개 경제의 성격의 결과로서 이주를 살펴보면 자본주의가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침투하여, 총체적인 세계체제를 만드는 극적인 영향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이러한 침투는 전통적인 수익의 원천을 파괴하고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드는데, 이중 일부가 국제적으로 이주해야만 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확장은 통신과 교통의 연결을 발전시켜 이러한 이동을 촉진한다.

왜 이주가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러한 이론에 덧붙여, 다른 여러가지 이론들이 이동의 양과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9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이주를 가속화하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송출업체의 중재, 그리고 여러 제도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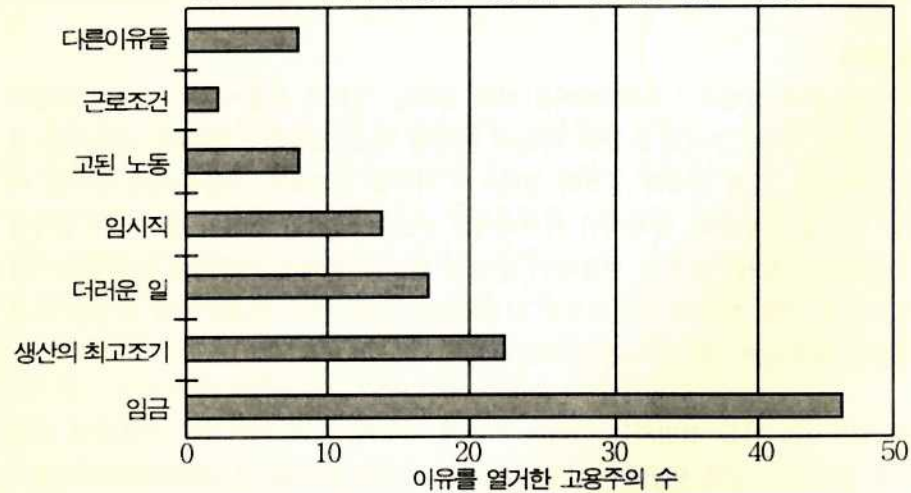
이러한 가설들은 각기 다른 수준을 설명하더라도- 대부분은 보완적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개인적인 결정을 하여 미국으로 떠난 멕시코노동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더 광범위한 구조적인 힘 -한편으로는 멕시코 농업고용의 붕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캘리포니아의 과일 따는 노동자의 부족-에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이중 노동시장의 지속

이러한 이론 중에서 국제이주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관적인 것은 이중 노동시장의 이론이다. 이민에 대한 수요는 사실상 많은 사회에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화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의 수를 증대시킨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양극화 정도의 결과이다. 비록 높은 임금을 받는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노동시장의 상층에서 생기고 있지만, 많은 오래된 화이트칼라 그리고 블루칼라의 일자리는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한편,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고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저임금고용의 비정규직화와 임시직화를 향하는 장기적인 경향의 일부분이다.

이민자들이 오랫동안 채워온 빈자리가 바로 이 분야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거부하는 임금으로 일을 하며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일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이 도표 10.1에 나타나 있다. 이 도표는 1994년 네델란드에서 고용주들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는 일정 분야의 산업에서 84명의 고용주가 미등록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고용인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특히 의류업과

도표 10.1 허가되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 네덜란드. 1994



출처 : Zandvliet, c., and J. Gravesteijn-Lichtelm, 1994

제공업은 비싸다. 그러나 또한 고용주들은 생산이 절정을 이루는 짧은 기간 일하려고 준비된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특히 농업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는 곳은 더욱 그러하다.

오랫동안 힘든일에서 임시노동자들에게 의지하여 온 분야는 건설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더 좋은 조건이 가능해진 것과 함께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자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떠나갔다. 한국은 미숙련 외국인노동자들을 배제시키려고 확연히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건설업에서 그들이 필요하다. 1996년 말 건설교통부는 한국최초의 초고속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더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비슷하게 말레이시아도 외국인노동에 대한 의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여전히 쿠알라룸푸르의 신공항에 일할 약 25,000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칠레나 브라질에서 온 미등록 외국인 이민자들이다. 브라질노동자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일하면 10 배나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임금을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일하도록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고용주들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96년 독일에서 실업은 12% 이상이었다. 그리고 200,000명 정도의 독일 건설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은 영국에서 온 100,000명을 포함하여 500,000명의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었다. 문제는 대개 봉급이다. 고국에서는 한시간에 12\$을 버는 영국인 노동자들이 동독에서는 25\$을 벌 수 있다. 한편 독일노동자들은 법률적인 임금과 모든 혜택이 지불되면 한시간에 35\$이 들게된다. 더욱이 뉴욕타임즈지에 한 고용주가 말한 것처럼 외국인노동자가 주는 이점은 "그들은 가족도, 취미도 없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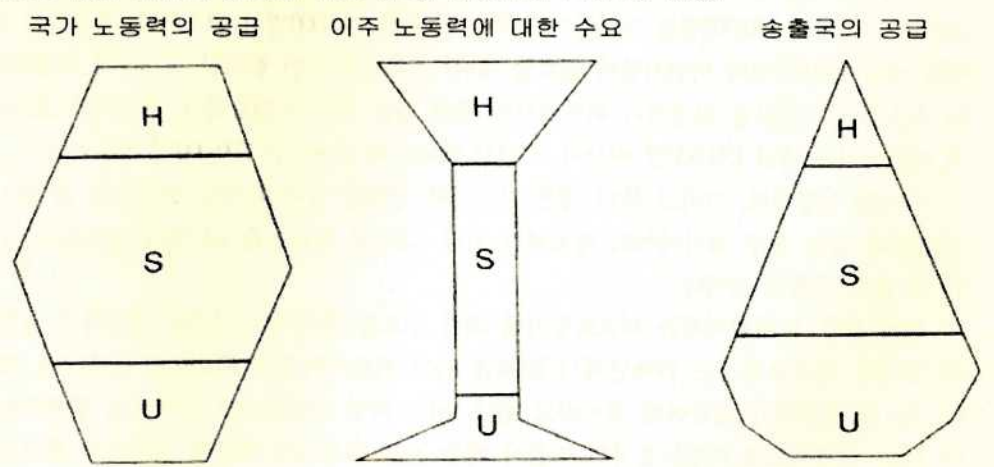
어떤 경우에는 기계화를 통하여 이민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주유는 대개가 방글라데시인 점원이 작동하는데, 주유소 펌프를 셀프서비스로 바꾸는 것이 사람이 하루 내내 일하는 것보다도 더 비싸지만 정부는 1997년부터 펌프를 바꾸도록 하였다. 그러나 많은 다른 일들, 특히 서비스직종은 기계화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내국인이 거절하는 일자리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10년전만 해도 상당히 존중을 받는 근로직이었다. 현재에는 소수의 본국노동자가 운전을 하며 빠르게 "이민자의 일"이 되고 있다. 워싱턴D.C.에서 택시운전사협회는 1996년에 지난 25년동안 외국에서 태어난 운전사의 비율이 25%에서 85%로 높아졌다고 추산한다.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처럼 상층에서도 이민자들을 필요로 한다. 국제적인 경쟁이 주는 압력에 처한 산업국가들은 고도의 숙련노동자들을 무척 필요로 한다. 최고의, 그리고 가장 명석한 외국인노동자들을 데려온 것이 또한 미국을 새로운 기술의 침단을 이끌게 도와주고 있다. 숙련외국인의 고용을 가능케 하는 비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이민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만들어졌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 빌 게이츠가 가장 심한 반대를 하였다. 그는 "우리 와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이러한 법안은 걸작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산업국가는 일자리의 상층과 하층에 있는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도표 10.2 와 같이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미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밑부분이 더 크지만 미국에서도 비슷한 도형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도표 10.2 기술의 공급과 수요 유형, 서유럽과 북유럽, 1990



H : 고도의 숙련, S : 숙련, U : 미숙련

출처 : Bohning, W., 1995

## 2) 인구적인 요소

앞으로 이민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인구변화에 따라, 그리고 산업사회의 노령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가족들은 아이를 더 적게 낳는다. 1990년-1995년에 발전된 지역에서의 평균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8명인데, 이는 장기적 교체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적은 수이다. 9개의 국가가 여성 일인당 1.5명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는데, 가장 적은 수는 이태리(1.2) 스페인(1.3) 그리고 독일(1.3)이다.

이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줄어드는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의지율이 증가하게 된다. OECD 국가 전체로 보면, 1990-2005년 기간 동안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18.9%에서 22.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층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2005년에 29.2%에 달할 것이다. 그리스는 28.6%, 그리고 이태리는 28.3%로 예상된다.

이민이 해결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인구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산업국가 전체에 대한 이민은 전반적인 인구성장의 45%를 차지한다. (1,000명당 4.0중 1.8) 이민이 인구를 더욱 젊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2차 대전 후 이민은 전체인구를 3백만명정도 늘여 놓았다. 그러나 연령구조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다. 문제는 새로 도착한 이민 가정이 본국인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지만, 빠르게 그 외의 인구구성을 따른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적당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이민이 있어야 하며 적당한 의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이 필요하다. 한 연구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등 4개 국가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수적으로 안정된 인구를 이루기 위해서 캐나다는 2025년부터 매년 120,000명을 받아들여야 하며, 벨기에는 40,000명이 필요하다. 스페인은 2010년부터 매년 100,000명의 이민자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 한사람 당 3명의 근로연령이라는 최소한의 의존율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훨씬 많은 유입이 필요하다.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에 대하여서는 매년 170,000명 이상이, 그리고 캐나다와 스페인은 700,000명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많은 본국인이 실업인 상태일 때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성공하고 있다 - 그리고 사람들을 더 많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은 선택일 것이다.

어찌 됐든, 노령화사회는 의료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이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노동청은 1996년에서 2006년 사이 의료서비스가 30%정도 증가하며, 3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어떤 산업보다도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이민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직종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훈련된 간호사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아질 것이다.

## 3) 결론

산업국가들은 이민자들이 기꺼이 떠맡으려고 하는 직종에 앞으로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 세계화가 고용의 밑바닥에 있는 일자리의 수, 특히 서비스직을 확대한다면, 그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 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업이 특정 직종의 근로조건이나 봉급을 향상하여 본국인이 반기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일이 영향을 줄 정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며,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일부 이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다.

## 11. 시간의 문제

산업국가는 자국노동자가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해주는 값싼 이민노동자를 언제나 필요로 한다. 그러나 더 밀접하고 깊게 경제가 통합이 되어 이주를 해야하는 동기가 없어지도록 가난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 추진되면 궁극적으로 공급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규모의 문제이다. 1995년부터 2025년 사이 저소득국가의 노동력은 14억에서 22억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들 국가는 현재수준에서 무역이나 투자가 이러한 확장을 흡수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는 가난한 나라를 경쟁에 노출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제를 일반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도울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무역도 투자도 충분한 대답은 아니다.

이를 떠나서 분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만일 세계화가 이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려면, 좀 더 공평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국가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매우 불공평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세계 무역의 확장을 거의 이루지 못하였다. 최저개발 국가들은 세계인구의 10%이나, 세계 무역의 단지 0.3%만을 차지 할 뿐이다. 20년 전 보다 비율은 반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불균형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이동에서도 확실히 나타난다. 이는 산업국가와 빠르게 발전하는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인구의 70%가 세계 투자의 단지 10%만을 얻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제적인 소득을 왜곡시킨다. 세계 일인당 소득이 1960-1994년 사이 세배가 증가한 반면, 1980년대보다 일인당 소득이 더 줄어든 나라는 100여국에 달하며, 1970년대나 60년대보다 줄어든 국가도 있다.

세계화는 결국 국제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가 새로운 범주로 다시 바뀌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국가들은 다른 대륙으로의 이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향한 탈출, 그리고 그다지 규제가 심하지 않은 동유럽으로 아프리카인이 이동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일의 전조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가 일부 국가를 아주 부유하게 만들더라도 국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말하자면 인도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살고 있으나, 세계 경제에 더욱 통합이 되어갈 것이다. 이는 막대한 수의 이들 나라 사람들을 더욱 주변화 되도록 하나,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가기에 충분한 자원을 지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문제가 있다. 아무리 긍정적인 추정을 한다고 해도, 발전이 지속이 되면 앞으로 몇 십년간 이주 압력이 더욱 증가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주

자들이 추가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역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시적인 증가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 반복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는 다른 측면을 보일 것이다. 가난한 개도국은 엄청나게 경쟁적인 환경에서 산업화하려 할 것이다. 승자와 패자의 세계에서, 패자는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찾고 있다. 일시적인 증가로 보이는 것이 대신에 가파르고 가차없이 증가하는 것일 수 있다.